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조선시대 심질의 성리학적 이해와 대처  
Neo-Confucian Understanding and Coping of  
Simjil in the Joseon Dynasty

2023년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정유경

# 조선시대 심질의 성리학적 이해와 대처

지도교수 이종서

이 논문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23년 0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정유경

鄭裕敬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전호태



審査委員 양상현



審査委員 이종서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년 05월

## 《목 차》

1. 서론	1
2. 심질의 발병원인과 치료	5
1) ‘心’의 작용과 심성수양	5
2) 조선의 ‘孝’ 인식에 기반한 단지할고(斷指割股)	12
3. 심질에 대한 정책과 처우	19
1) 성리학적 관념에 의한 심질 정책	19
2) 조선시대 심질 환자의 실태와 처우	27
4.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40

## 《표 목차》

〈표-1〉	심질의 증상과 발병원인	.....	6~7
〈표-2〉	심질에 대한 인육 치료 사례	.....	15 ~17
〈표-3〉	독질, 폐질, 잔질의 분류	.....	20
〈표-4〉	울산부, 대구부, 단성현 심질자	.....	22~23
〈표-5〉	울산부호적대장 병인 비율	.....	30

## 국 문 요 약

# 조선시대 심질의 성리학적 이해와 대처

정유경

조선에서는 자연현상과 더불어 사람의 생로병사를 성리학적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고 인식하였다. 이 때문에 병을 다루는 의원은 성리학적 소양을 가져야 했으며, 성리학자는 의학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조선은 정신질환을 심질이라고 불렀으며, 심질은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리학에서 심(心)에는 신(神)이 깃들며, 신은 사람의 감정인 칠정(七情)을 거느린다. 심과 신은 사람의 정신활동을 주재하는 것으로 심신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활동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조선에서 심질에 대한 병리론은 철저하게 성리학적 관념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질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성리학적인 관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심질은 조선이 들어서면서 사료에서 급격하게 등장하는 횡수가 늘어났다. 본 연구는 조선이 정신질환을 성리학적인 관점으로 심질을 이해했으며, 이 관점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이 심질의 치료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치료로 인식했던 방법은 심신수양이었다. 마음 수양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만들어야 했다. 마음을 고요히 만드는 방법은 마음을 돌아보고 환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즉 욕심으로 인해 심질이 발병한 것으로 이는 심질의 원인과 책임을 환자에게 지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념 아래 심질을 앓는 관리는 스스로의 병을 부끄럽다 여겼으며, 체직의 사유가 되는 병임이 확인된다.

한편 조선은 성리학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성리학적인 관념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이미 무속과 불교가 백성들의 종교로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성리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을 쥐여줄 필요가 있었다.

성리학 홍보의 방편으로 심질의 치료가 이용되었다. 조선은 심질이 단지할고를 통해서 심질이 치료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단지할고를 행한 이를 효자로서 표창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했다. 이러한 홍보는 큰 성과를 얻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인육이 심질의 치료약이라는 소문이 돌고 납치와 살인까지 일어났음이 확인된다.

조선은 관리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교육하여 성리학적 질서 아래에 편제하는 것이 지치(至治)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심질환자에 대해서도 성리학적인 관념을 통해 다스리고자 하였다. 조선은 심질뿐 아니라 신체질환에 대해서도 측은지심에 따라 곡식과 옷, 약재를 지급해주었다. 또한 스스로 구제가 어려운 이들은 군역과 잡역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자립구제와 가족부양이 원칙이었으므로 환자를 부양하는데 부양가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심질은 병증에 따라 폭력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증상은 조선 또한 인지하고 있었음이 실록과 의서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삼강의 도리 안에서 마땅

한 방한 제도도 없이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부양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질에 의한 살인사건이 늘어났으며, 사람을 죽이고 심질을 앓고 있다고 자백하여 감형을 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 심질과 관련한 살인사건이 빈번해지며 심질이라는 병 자체에 대한 시선은 악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조선 후기 호적을 살펴보면 심질이 신체질환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남이 확인된다. 이는 심질을 앓아도 눈에 띄는 증상이 아니라면 면역자로 인정받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결국 조선은 병인을 기재하는 데에 신체질환을 중심으로 둔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지방에 부과된 할당량은 마을 공동체가 각각 채워나가야 했다. 그러나 심질 환자는 건강한 이들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채우지 못한 할당량은 그들의 이웃이 채워야 했다. 자신의 할당량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에 있어 심질 환자는 부담스럽고 성가신 존재가 되어갔다.

성리학을 통해 심질을 바라보았던 시선은 성리학을 내재화한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였던 사회적 시스템은 조선 후기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심질을 보는 관점만이 현대까지 이어져 정신질환을 보는 인식하는 것에 있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심질(心疾), 정신질환, 의학, 성리학, 심성수양, 단고할지, 효(孝), 덕치, 관형(寬刑), 전광실성살인, 호적

## 1. 서론

정신질환은 현대에도 그 인식이 미미해 여타의 병과는 다른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존재한다.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정신질환이 미디어를 타면서 정신질환자 자체에 대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그저 뇌·신경계의 이상에서 기인하는 명백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 중 하나이다. 정신질환이란 질병의 개념을 강화시킨 용어로서 정신병적이고 신경증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sup>1)</sup>

심질(心疾)은 조선에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병을 의미하며, 정신질환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혼용되기도 한다. 심질은 성리학적인 심(心)의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심은 장기로서의 심장이 아닌 관념적인 심을 의미한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대부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 이는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만백성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관리의 의무이자 바른 성리학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2)</sup>

심질을 보는 시각에는 성리학적인 관념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심질을 다스리는 것이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은 현대의 정신질환에 대한 시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 정신건강보건 서비스 이용자 수와 정신과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수가 극히 적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정신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신과 작업치료사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편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sup>3)</sup>

한국에서 일반인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해 정의를 하도록 하면,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병에 걸린 불쌍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기술한다.<sup>4)</sup> 이는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해 호르몬의 조절이나 유전과 같은 요소보다는 감정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때문일 것이다. 감정과 같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현대의 인식은 조선에서의 심질의 발병 원인에 대한 인식과 비슷하다.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정신질환은 마음의 병이었다. 이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심질의 치료 방법으로 생각되었다.<sup>5)</sup>

심성수양 외에 심질로 인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에는 단지할고(斷指割股)를 통한 인육치료가 있었다. 부모가 주신 몸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여겼던 조

1) 양옥경,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주)나남출판, 2006

2)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권근(權近)이 상서(上書)하여 시정(時政) 여섯 가지 일을 말하였다. ” 첫째는 심술(心術)을 바루는 것이니, 인주(人主)의 한 마음은 백성을 다스리는 본원이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추기(樞機)이니, 바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욕(嗜欲)의 즐거움을 따르지 말고, 공경의 마음을 가지시어 심술을 바르게 하고 부지런히 실덕(實德)에 힘써서, 민생을 다스리고 천도(天道)에 응하소서”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8일

3) 강대혁, 김선옥,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현황과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역할」,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1), 15~27, 2011.

4) 이은희, 김경자, 이신영, 「광주지역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신경정신의학』 39.3, (2000): 495~506, 2000, 500쪽.

5) 『의약론』에는 8종의 의원 중 첫째를 심의(心醫)라고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도록 가르쳐서 병자(病者)가 그 마음을 움직이지 말게 하여 위태할 때에도 진실로 큰 해(害)가 없게 하고, 반드시 그 원하는 것을 꼭진히 따르는 자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기운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자와 더불어 술을 같이 마시고 깨어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것은 심의(心醫)가 아니다.”( 心醫者, 教人常使心安, 病者勿動其心, 殆時苟無大害, 必曲從其願。 心安則氣安故也。 有與病者對酒不醒者, 此非心醫也。)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2월

선에서 몸을 훼손하고도 표창을 받고 물질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었다.<sup>6)</sup> 이러한 치료는 조선 후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오게 되지만 조선 조정은 성리학의 홍보를 위해 단지할고를 권장하였다.

마음의 작용에 의한 병이라는 인식은 정신질환을 신체질환과 다르게 만들었다. 특히 조선은 성리학을 공부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심질을 앓는 사람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 또한 심질을 바라보는 시선에 질책의 시선이 섞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조선이 처음부터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것은 아니었다. 관리는 향산(恒産: 일정한 재산과 생업)이 없어도 향심(恒心: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백성들은 향산이 유지되어야만 향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이 때문에 심질에 대한 잣대는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관리는 백성들이 향심을 지킬 수 있도록 향산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야 했다.

따라서 심질로 인해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병한 환자에 대해 조선은 구제 정책을 시행했다. 잡역과 병역을 면제시켜 주었으며, 혜민서에서 거두어 치료하고, 굶어 죽지 않게 지방관이 상시 살피도록 하였다. 또한 의원을 파견하여 구료책을 전습하게 하였고, 심질을 앓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령을 만들어 관형(寬刑)을 적용하였다. 조선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백성들이 향산을 유지하게끔 도왔다. 그러나 조선 후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심질 환자는 삶을 유지 시켜주었던 사회적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sup>7)</sup> 생산 능력이 없는 심질 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점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갔다.

한편 양란 이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조선은 점점 성리학적 규범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해 성리학적 규범을 다시금 널리 홍보하였다. 백성들에게 생활 곳곳에 성리학적 규범이 적용되면서 그들은 점차 성리학적 관념을 내재화했다. 개인의 심성을 기르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조선의 성리학적 규범을 백성들이 내재화하면서 심질로 인한 정신질환은 환자 개인의 탓이라는 시각이 강해지게 되었다.<sup>8)</sup>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동시에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인식은 그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품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부각 되면서 언제든 광증을 일으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sup>9)</sup>

6) 이경록, 「몸의 소비 : 조선전기의 인육치료」, 『의료사회사연구』 제4집, (2019): 5~37, 2020, 128~162쪽.

7) 조선 후기 단성현 호적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양상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단성 장애인의 상당수가 지역에 안착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이나 유망의 형태로 사라지며, 정신 장애인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심승구,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38(0), 271~303, 2012, 271~303쪽.)

8) 조선에서 장애를 보는 시각은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누어진다. 후천적인 장애는 사람의 탓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비유하면 사람과 같으니, 처음으로 날 때부터 폐질(廢疾)이나 독질(篤疾)이 있는 자는 이것이 하늘 탓이요, 낳아서 자라다가 폐질(廢疾)·독질(篤疾)이 있는 자는 이것이 사람 탓이니”(比人, 初生而有廢疾篤疾者, 是天也。 生長而有廢篤疾者, 是人也。)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22일

9) 이전까지 장애인이 일으키는 범죄는 『대명률』의 “노소폐질수속” 조항에 따랐다. “『대명률(大明律)』 조문을 살펴보면 노유(老幼)과 폐질자(廢疾者)에게는 속전(贖錢)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按《大明律》文, 老幼廢疾者, 許收贖)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7일 ; 조선 후기 전광으로 실성한 이들이 저지르는 살인을 다루기 위한 법령이 따로 만들어졌다. “미치고 실성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다”(顛狂失性而殺人者, 減死定配) 『대전통편』 형전(刑典) 살육(殺獄) [顛狂失性殺人]; 김호는 광인의 범죄를 사면하자 미친척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늘어났

조선 후기 형성된 정신질환자를 보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되어 현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정신질환의 원인인 심질에 대한 연구는 신체장애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질을 다루는 논문은 『활인심방』과 같은 개인의 문집을 통해 심질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여 유학을 철학치료에 활용하는 치료 모델을 소개한 연구가 있다.<sup>10)</sup> 또한 『흠흠심서』를 통해 광증으로 인한 범죄와 관형의 범위에 대한 정약용의 관점을 논한 논문이 있다.<sup>11)</sup> 그러나 대부분 장애인사 연구는 신체질환이 중심이 되어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는 부속적으로 등장한다. 정신질환만을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정신질환 연구는 사료에 등장하는 정신질환의 증후와 치료법을 현대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어떠한 정신질환과 비슷한지 해당 치료법이 연구가 대부분이다.<sup>12)</sup> 이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성리학을 통해 조선이 심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였는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정신질환인 심질을 전기부터 후기까지 성리학적인 관점으로 조명할 것이다. 따라서 의서와 실록, 문집 등 성리학을 향유한 계층이 집필한 사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의서는 한의학교전데이터베이스를, 관찬사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울산, 단성, 대구 호적은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을 이용하였다.

본문 2장에서는 심질의 성리학과 연관성을 밝히고 성리학자들이 보았던 심질의 발병원인과 치료방법을 연구해 볼 것이다. 성리학적인 관념을 통한 치료는 시간이 지나며 부작용을 낳아 심질에 대한 시선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성리학적 관념이 내재되어 있는 치료방법을 나누어 연구해볼 것이다. 우선 1절에서는 심(心)의 작용과 이로 인한 심질의 치료 방법이었던 심성수양을 2절에서는 성리학적 관념인 ‘효’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단지할 고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심성수양은 주로 문집 등을 이용하여 살펴볼 것이며, 단지는 실록 등 관찬 사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고 설명한다. (김호, 「『흠흠심서』의 일고찰-다산의 과오살 해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4, - (2010): 233~267, 2010.)

10) 이연도, 「유가 공부론과 명상 -퇴계 「활인심방(活人心方)」을 응용한 수양치료 모형-」, 『한국 철학논집』 0.28, : 363~386, 2010. ; 정재권, 「퇴계 《활인심방》의 활용방안 연구-심리상담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37, - (2021): 35~65, 2021.

11) 김호, 「『흠흠심서』의 일고찰-다산의 과오살 해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4, - (2010): 233~267, 2010.

12) 조선의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공창훈, 「朝鮮21代 王, 英祖의 神經精神症狀에 대한 考察」,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2019. ; 김성수, 「조선 전기 주요 의서에 나타난 정서의 질병에 대한 인식 탈영(脫營)과 실정(失精)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24.2, (2021): 7~36, 2021. ; 김용숙,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비극(悲劇)과 그 정신분석학적(精神分析學的) 고찰(考察) -'한중록'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19(0), 3~52, 1958. ; 서정미, 「임오화변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경기도, 2016 ; 서혜진, 「연산군과 폐비 윤씨의 양극성 장애 가능성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국내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울산, 2020. ; 신승현, 「연산군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경기도, 2018. ; 오영택 외 5인, 「우황청심원의 고문헌기록 및 실험적 연구결과 분석을 통한 임상응용 확대의 필요성 고찰」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6.1, (2017): 1~10, 2017. ; 이강엽, 「바보 양반담의 풍자양상과 그 의미」, 『연민학지』 7(0), 243~269, 1999. ; 유현재, 「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식, '조선후기 장애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 『태학사』, 433~466, 2009. ; 이부영, 「전통의학의 정신질환 개념에 관한 연구 - 癡狂, 邪出 示, 臟燥症을 중심으로 -」, 『신경정신의학』 40.6, (2001): 1001~1017, 2001 ;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글항아리, 2011 ; 정하은, 김창윤,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신경정신의학』 53.5, (2014): 299~309, 2014.

3장에서는 심질 환자에 대한 제도와 처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제도가 심질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절에서는 심질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여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심질에 대한 제도는 실록과 법령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조선 전기의 자료는 실록과 일기자료에 기반하고, 조선 중·후기는 실록과 함께 지방의 호적자료와 일기 등을 이용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 2. 심질의 발병원인과 치료

### 1) ‘心’의 작용과 심성수양

동양의학에서 심은 장기로서의 심(血肉之心)과 신(神)을 저장하는 심(神明之心)으로 구분된다.<sup>13)</sup> 심에 사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심 내부에서부터 기가 균형을 잃어 병이 생기면 이를 심질이라고 불렀다. 고대 중국에서 심질은 명음(明淫)으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이에 대한 주석으로 “생각이 많고 지나치게 마음을 쓰면 생기는 병”이라고 기록되어있다.<sup>14)</sup>

동양의학은 음양오행의 순환을 기반으로 했다. 인간의 생명활동에는 정·기·신이 필요하다. 심(心)은 그 중 기와 신(神)을 부린다. 오장(五臟)인 심은 오행인 화(火)에 대응되며, 육부(六腑)인 담(膽)과 서로 통한다.<sup>15)</sup> 심질은 사기(邪氣)가 심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신이 요동치며 발병하였다. 조선에서는 심질 또한 성리학적인 심에 대한 해석을 적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동양의학에서는 칠정과 육욕(六欲)이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고 한다. 또한 심은 물과 같아 요동치면 온갖 병이 생기고, 고요히 하면 밑바닥이 흰하게 드러나 보인다. 결국 심을 고요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sup>16)</sup> 조선의 성리학에서도 인욕을 멸하면 천리가 밝아져 몸이 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했다.<sup>17)</sup> 칠정을 다루는 심술(心術)을 바르게 해 기를 맑게 유지하고 리(理)를 잘 발현하게 하는 것이 치자(治者)의 자격이었다.

일정한 생산이 없어도 몇몇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뿐이다. 백성은 일정한 생산 없이는 몇몇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기에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주고 선(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sup>18)</sup> 나라를 통치하는 관리는 향심을 유지

13) 황의환은 이천의 『의학입문』에 등장하는 구절을 통해 심이 유형의 심과 무형의 심이 있다고 말하였다. (황의환(1987), 『東醫精神醫學』, 現代醫學書籍社, 55쪽)

14) “明淫心疾-明晝也 思慮煩多 心勞生疾” 『춘추좌씨전』 5 魯昭公 一 元年, 庚申 B.C. 541

15) “심은 군화(君火)이고 신(神)을 주관하니”(心者, 君火也. 主人之神) 『동의보감』 外形篇卷之一 眼諸脉屬目 ; “칠정(七情)은 모두 마음에서 생기고, 칠기(七氣)는 모두 기에 속한다. 기는 양이라서 움직이면 화(火)가 된다.”(七情總發於一心, 七氣總隸於一氣, 氣陽也. 動則爲火)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氣用藥法 ; “심(心)과 담(膽)은 서로 통한다. 그래서 심병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때는 담(膽)을 데우는 것을 위주로 하고, 담병으로 덜덜 떨고 전광이 있을 때는 심을 보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心與膽相通, 心病怔忡, 宜溫膽爲主, 膽病戰慄癲狂, 宜補心爲主)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三 五臟六腑 臟腑相關

16) “심(心)은 신명(神明)의 집이다...하루 중에서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거나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꿈꿈이 생각할 때는 직경 1촌이 되는 곳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또, 욕심, 즉 좋지 않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짝이 트면 이를 돌려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데...칠정과 육욕(六欲)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모두 이렇다...심(心)은 물과 같아서 오래 두면 가라앉아 밑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영명(靈明)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심을 고요히 하면 원기가 든든해져 온갖 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떠올라 신(神)이 밖으로 달려나가면 기는 안에서 흩어지고 혈은 기를 따라 흘러 영위가 혼란하므로 온갖 병이 공격한다...즐거운 마음으로 심[天君]을 기르면 질병이 생기지 않으니...”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心藏神

17) “성현은 심질에 해를 입지 않는다”(聖賢必不害心疾) 『心經附註』 제2권 大學 1, 誠意章 ; “《맹자(孟子)》를 강독(講讀)하신다고 하니, 이 글을 읽은 자는 반드시 먼저 그 편(篇)의 주의(主意)가 어디에 있는가를 안 연후에야 비로소 차례로 풀어서 수용(受用)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주의(主意)라는 것은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한다.[遏人慾存天理]’는 여섯 글자 뿐입니다.” 『영조실록』 영조실록 9권, 영조 2년 4월 24일

18) “일정한 재산 없이 향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향심을 지키지 못한다...그렇게 해준 뒤에 현명한 임금은 백성들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심질이라는 명칭은 고려에서 처음 등장하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에서는 1376년 공민왕 대 심질이 처음 등장하는데 세가에 1번, 열전에 2번으로 총 3번 나타난다.<sup>19)</sup>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 『조선왕조실록』에 138번, 『승정원일기』에 91번, 『비변사등록』 3번 등장한다. 같은 시기 중국의 『명실록』과 『청실록』에서는 각각 28번 21번 등장한다. 이는 조선에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내적인 심신 수양을 중시한 조선 성리학의 특징 때문으로 보인다.

의서에서 나타나는 심질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심질의 증상과 발병원인<sup>20)</sup>

병명	증상	발병원인
경계(驚悸) <sup>21)</sup>	①경(驚): 갑자기 두근거림, 편안하지 않음. ②계(悸):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짐. ③심하면 기절할 듯한 증상을 보임.	①생각이 많거나 크게 놀라서 생기며, 신(腎)이 심(心)을 억눌러 계(悸)가 됨.
정충(怔忡) <sup>22)</sup>	①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함. ②다른 사람이 잡아갈까 두려워함.	①주로 부귀에 급급하거나 빈천을 근심하거나 소원을 이루지 못해 생김. ②심(心)이 허해 가슴속에 수(水)가 스며들고, 수가 올라오면 심화(心火)가 싫어해 저절로 마음이 불편해짐.
건망(健忘) <sup>23)</sup>	①갑자기 무언가를 잊어버린 뒤 애써 생각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음. ②일에 시작한 있어도 끝이 없고, 말을 하면 앞뒤를 알지 못함.	①정충이 오래되면 건망이 됨 ②심비(心脾)의 혈이 적어 신(神)이 이지러졌기 때문 ③생각을 많이 해 심이 상하고, 신(神)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함
심담담대동(心澹澹大動) <sup>24)</sup>	①놀란 적이 없어도 저절로 가슴이 뻐. ②놀라거나 두려운 경우에도 가슴이 울렁거림.	①수궐음맥(手厥陰脉: 십이경맥의 하나로 심포(心包)에 속함)에 이상이 생겨 가슴이 울렁거리며 크게 뻐.
전간(顛癇) <sup>25)</sup>	①전질(顛疾)과 간질(癇疾)을 말함. ②어지러움으로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쓰러질 때는 소리를 지르고 깨어날 때는 때때로 거품을 토함. ③발작했다가 깨어났다가 하는 것이 끝없이 반복. ③마음이 즐겁지 않으며 말에 조리가 없어 술에 취한 것 같거나 바보같이 보임.	①심기(心氣)의 부족으로 가슴에 열이 쌓여서 생김. ②담과 열이 서로 부딪쳐 생긴 풍(風)과 심이 서로 뒤섞여 답답하고 어지러워짐.

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曰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是故明君制民之産...然後 驅而之善) 『맹자』 양혜왕 상 7

19) <공주가> 죽은 후에 비록 여러 비(妃)를 들여 별궁(別宮)에 두었으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슬퍼하며 공주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及薨, 雖納諸妃, 置諸別宮, 不能近, 日夜悲思公主, 遂成心疾.) 『高麗史』 世家 卷第四十三 恭愍王 21年 10月

20) 심질의 증상은 한의학교전종합DB를 통해 『경약전서』, 『동의보감』 등 의서를 참고해 정리하였다.

	④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잠시 후에 깨어남.	
전광(顛狂) <sup>26)</sup>	①전(顛)이란 평소와 다른 것으로 바보 같아 보이고 말에 순서가 없는 것이며, 광(狂)이란 미친 것. ②처음 발작할 때는 잠을 적게 자고 스스로를 고상하고 현명하며 분별력이 있고 똑똑하며 귀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오만하게 행동함. ③아무 때나 웃고 노래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님. ④옷을 벗고 뛰며 담을 넘고 지붕 위로 올라감. ⑤머리를 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 함.	①맥이 양맥이면 광병(狂病), 음맥이면 전질(顛疾). ②신명(神明)이 어지럽거나, 담화(痰火)가 성하거나 막힘 ③화(火)가 왕성하거나, 풍담(風痰)이 심(心)을 미혹하게 하여 구멍을 가림
탈영(脫營) <sup>27)</sup>	①무기력하고 오싹오싹하며 때로 놀람.	전에는 귀하였으나 천하게 되어 사기(邪氣)가 들어오지 않아도 병이 속에서 생김.
실정(失精) <sup>28)</sup>	②입맛이 없고 마음이 고단하며 몸이 마름.	전에는 부유했으나 가난해져 사기(邪氣)가 들어오지 않아도 병이 속에서 생김.
사수(邪祟) <sup>29)</sup>	①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망령됨. ②노래 부르거나 통곡하거나, 신음하거나 웃거나, 도랑에서 앉아 자거나 똥이나 더러운 것을 먹거나, 나체로 몸을 드러내거나 밤낮으로 달리거나, 끝없이 성내고 욕함.	①기혈이 허하고 신광(神光)이 부족하거나 담화를 낚. ②스스로 정신(精神)을 지키지 못해 신광(神光)이 완전하지 못함.
치매(痴呆) <sup>30)</sup>	①말이 뒤죽박죽이며, 행동이 경우에 맞지 않음.	②사려(思慮)나 의심, 경공(驚恐) 때문.

『동의보감』에서 심질은 신(神)에 소개가 되어 있다. 이는 심질의 주요한 발병원인을 신이라고 본 것이다. 심에 깃든 신은 희(喜)·노(怒)·우(憂)·사(思)·비(悲)·경(驚)·공(恐)이라는 칠정(七情)을 거느린다. 심과 신은 사람의 모든 정신 활동을 주재한다. 심질은 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요동칠 때 발병하며, 한 번 발병하면 쉽게 낫지 않는다.<sup>31)</sup> 칠정은 심질의 발병

21)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驚悸

22)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怔忡

23)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健忘

24)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心澹澹大動

25)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癲癩

26)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顛狂

27)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脫營

28)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失精

29) 『동의보감』, 雜病篇卷之七 邪祟

30) 『景岳全書』, 卷之三十四 天集 雜證謨 癲狂痴呆 論治 共五條

31) “심(心)은 신(神)을 간직하여 우리 몸의 군주가 되어 칠정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칠정이란 희(喜)·노(怒)·우(憂)·사(思)·비(悲)·경(驚)·공(恐)이다. 또한 혼(魂)·신(神)·의(意)·백

에 있어 주요한 원인인 것이다.

기쁨이 지나치면 백을 상하고, 지나치게 화를 내면 음을 상하게 한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면 마음에 걸려 흠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머물러 멍치게 되며, 이로 인해 신(神)이 상한다. 심이 허하면 슬퍼지고, 슬퍼하면 기가 소모된다. 경은 놀람으로 경계(驚悸)라고도 하며, 혈이 음에 몰리고 기가 양에 몰리면 경광(驚狂)이 된다. 계(悸)란 가슴이 두근거리며 두려워하는 것으로 신(腎)이 심(心)을 억누르기 때문에 계(悸)가 된다. 공은 두려움으로 정기(精氣)가 신(腎)에 몰리면 두려워하는데, 심(心)이 허하여 신기(腎氣)가 아우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공과 경은 서로 비슷하나 경은 두려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공은 스스로 아는 것이다.<sup>32)</sup>

심질은 바깥에서 침범해 들어오는 사기(邪氣)로 인해 발병하게 될 수도 있었다. 바깥에 존재하는 사기를 외사(外邪)라고 부른다. 외사는 총 여섯 종류로 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로 분류된다. 심질은 그중 풍사(風邪)와 화사(火邪)의 작용으로 인해 주로 발병했다.

① 풍사: 풍전은 혈기가 허할 때 풍사(風邪)가 음경(陰經)에 침입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혈기가 적어지면 심기(心氣)가 허해져서 정신이 흠어지고 혼백이 망행해서 풍사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니 음경으로 들어가면 전질(癲疾)이 된다. 또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갑자기 놀라 사기가 아울러 머무르게 되면 자식이 전질(癲疾)이 생긴다. 발작을 하면 땅에 넘어져 침을 토하고 정신을 잃는 것이 이것이다. 본래 전병은 모두 풍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3)</sup>

② 화사: 곧 화담(火痰)이다. 열담으로 번열(煩熱)이 많이 나며 담이 말라 맺히고, 머리와 얼굴이 화끈화끈 열이 나며, 눈이 짓무르고 목구멍이 막히는 듯하며, 전광증이 생기고, 속이 쓰리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데는 소조중탕을 쓰는 것이 좋다.<sup>34)</sup>

조선은 심질로 인한 병 중 화(火)로 인한 병은 그 증상이 심각하다고 보았다. 화로 인한 병은 주로 전염병과 함께 나타나는데 실록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광(癲狂)이 발병하여 폭력성을 띠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① 먼천(沔川)의 교생(校生) 이계남(李繼男)이 염병에 걸려 열이 극도로 치솟은 나머지 귀신들이 눈 앞에 보이자 꾸짖으며 낮을 휘두르다가 그 어미의 좌측 젖가슴 부위를 잘못 찔러 어미가 죽고 계남 역시 발광하다가 죽었다.<sup>35)</sup>

② 경성(鏡城)의 백성 김명익(金鳴益)의 온 집안이 발광(發狂)하여 서로 함부로 죽었다. 김명익(金鳴益)은 스스로 그의 어미와 그의 두 딸 및 사촌 누이인 백삼길(白三吉)의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고, 또 그의 아들 김유백(金裕白)으로 하여금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게 하였으며, 백삼길(白三吉)로 하여금 그의 아들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게 하였고, 그의 종[奴]으로 하여금 그 자식 한 사람을 찔러 죽이게 하였다. 김명익(金鳴益)은 또 스스로 그 종을 찔러 죽이고, 백삼길(白三吉)은 또한 김명익(金鳴益)을 잡아 죽여서, 서로 죽인 자가 모두 10인

(魄)·지(志)의 주인은 신(神)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동의보감』) ; “만약 신(神)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미친 듯이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동의보감』)

32) “혼(魂)·신(神)·의(意)·백(魄)·지(志)의 주인은 신(神)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동의보감』 「內景篇卷之一」 神

33) 『향약집성방』 風門 2, 風癲, 風癲

34) 『단곡경험방』 卷之一 內景篇二, 痰飲, 熱痰

이었다.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대개 김명익(金鳴益)의 여러 아들이 천연두(天然痘)를 앓았는데, 한 아들이 미치광이의 말을 하니, 김명익(金鳴益)은 이를 요사스런 귀신이 붙었다고 여기고는 곧 불침[火釘]을 주었다. 그러자 여러 아들이 한꺼번에 발광(發狂)하여 칼을 빼어 서로 죽이니, 몸과 머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sup>36)</sup>

③ 막 염병(染病)을 겪어서 광증(狂症)이 갑자기 발동하여<sup>37)</sup>

위 기사들은 실록에서 나타나는 전염병으로 인한 심질의 발병을 보여준다. 전염병으로 인해 광증이 발병하면 몸 속에서 치솟는 화(火)로 인해 양명병(陽明病)이라고도 불렀던 광증이 일게 된다. 이렇게 생긴 광증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며, 위 사례와 같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편 고대부터 심질은 귀신에 의해 발병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조선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죽으면 기가 흩어진다고 여겼던 성리학에서는 귀신은 비성리학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조선은 귀신을 성리학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귀신은 인격을 지니지 않은 귀신과 인격을 지닌 귀신으로 나누어진다.

...(전략)... 이첨이 말하기를,

"유가의 도(道)는 묘명(杳冥)하고 혼묵(昏默)한 데에 있지 않고 사물(事物) 위에 있으니, 옛날 성현들이 대개 일찍이 논한 것입니다. 사람이 천지의 음양(陰陽)을 받아서 나는데, 음양이 곧 귀신(鬼神)입니다. 사는 것은 신(神)이고, 죽는 것은 귀(鬼)입니다. 사람의 동정(動靜) 호흡(呼吸)하는 것과 일월(日月)이 차고 이즈러지고 하는 것과 초목이 피고 떨어지고 하는 것은 귀신(鬼神)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귀신(鬼神)의 이치가 곧 천지(天地)의 이치로군! 사람이 죽으면 정신이 있는가? 또 속담에 말하기를, '귀신(鬼神)이 화복(禍福)을 내리고, 책(責)하고 취(取)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가?"

하니, 이첨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어서 정기(精氣)가 흩어지지 않는다면, 책(責)하고 취(取)하는 이치가 있겠으나, 이것은 천지 귀신의 정기(正氣)가 아니고 부정(不正)한 기운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sup>38)</sup>

조선의 실록에서는 귀신에 대해 논하는 글이 몇몇 보인다. 위 기사는 그중 조선 초 이첨이 귀신에 대해 말한 것이다. 이첨은 귀신에 대해 인격을 지니지 않은 자연법칙 즉 음양오행의 운행이 귀신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의 움직임과 호흡(呼吸)하는 것, 해와 달이 차고 지는 것, 초목이 피고 떨어지는 모든 것을 귀신의 이치로 설명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격을 지닌 귀신도 존재하였다. 여기에는 조상귀신과 비명에 황사한 귀신이 속한다. 여기서 위에서 보았던 전염병은 주로 자연법칙이 깨지거나 비명에 황사한 이들이 많은 전쟁터와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통치자가 천도를 바탕으로 덕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다.<sup>39)</sup> 이이는 천지

35) 『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7월 26일

36)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1월 11일

37) 『영조실록』 34권, 영조 9년 6월 13일

38) 『정종실록』 정종 2년 10월 3일

39) “홍수·한발·질병은 천도(天道)가 운행하는 운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대로 간혹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근(飢饉)이 일게 되면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은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고 이를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봉집』

가 제자리에 위치하고 만물을 육성하는 것이 모두 임금이 덕을 닦는 데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임금이 덕을 닦는 것에 소홀하면 천도의 운행이 어그러지고 자연재해와 질병 등이 닥치게 된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이 크게 번져 백성들이 고통받으면 그 책임은 덕치를 이루지 못한 임금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하였다. 임금이 덕이 없어 자연 귀신이 벌을 내린다는 관념은 심질의 책임 소재가 임금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① 사람이 힘써 착한 일을 하고 고요히 있을 때는 도(道)에 부합되고 움직일 때는 복(福)이 모여들리니, 이와 같이 한다면 자신의 운명은 자기에게 있고 염라대왕[司殺]에게 매여 있지 않아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장수를 누리고 살기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살게 될 것이다.<sup>40)</sup>

② 귀신의 도(道)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게 되니<sup>41)</sup>

위와 같이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선(善)을 행하면 귀신이 복으로 내린다고 생각했으며, 반대로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준다고 생각했다. 이는 동양의학에도 적용되었으며, 성리학을 통해 덕을 닦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기가 흐트러진 사람은 도덕적 본성인 리가 잘 발현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질 여지를 주었다.<sup>42)</sup> 이 때문에 마음을 수양하고 성리학을 공부해 착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아 심질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조선 후기 양명학이 수용되며 더 강해졌는데, 심즉리설(心卽理說)과 지행합일(知行合一)을 통해 지고지순한 마음을 아는 것과 아는 것(善)을 실천함으로써 심질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세워질 수 있었다.

조선 초 의서에는 착한 일을 하고 고요히 있으면 덕을 쌓아 장수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 중기와 후기까지 이어진다. 조선 중기에도 여전히 선행과 몸의 질병의 관계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했다. 오히려 질병을 선악의 개념으로 보며 질병을 죄악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정이(程頤)는 도덕적 기운인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비롯한 도덕적 신체의 문제에 관심을 쏟았으며, 수요(壽夭)의 문제 또한 선악의 관점으로 풀었다. 이러한 정이의 주장을 조선에서는 이이가 계승하였는데, 이이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인 진원지기(眞元之氣)를 길러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양신(養身)보다는 양심(養心)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했다.<sup>43)</sup>

한편 심질의 발병의 원인이 성리학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관점도 있었다. 먼저 성현은 심질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구문에 대한 문답이 조선에서 사대부들 사이의 화제였다.

① 성현(聖賢)……심질(心疾) - 생각하건대, 이때 어떤 사람이 마음의 병에 대한 일을 먼저 말하였으므로 아울러 거론하여 답한 듯하다. ‘불해심질(不害心疾)’이란 마음의 병을 가지

40) 『의방유취』 卷之二百一 養性門 三, 三元延壽書, 陰德延壽論

41)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1일 기해

42) 이경록은 질병을 음양과 오행의 질서가 깨진 상태로 이해하면, 그 환자는 질서를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다고 하였다. 반대로 심을 기르고(養心) 선행을 실천한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고 말한다. (이경록(2020), 「조선초기 성리학적 의료관과 의료의 위상」, 『조선전기의 의료제도와 의술』, 역사공간, 163~194쪽)

43) 성호준(2019), 「儒醫 李梴과 栗谷 李珥의 保養論」, 『울곡학연구』, 40, 281~306쪽

44) 『간재집』 속집 제3권 심경질의 [心經質疑]

고 스스로 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sup>44)</sup>

② 2권 1판의 ‘반드시 마음의 병으로 기를 해치지 않는다.[必不害心疾]’에 대하여

이 한 구절에 대한 뜻풀이는 옛 판본과 새 판본의 몇 가지 설이 각기 다른데, 사실 그 잘잘못을 함부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해(害) 자는 상(傷) 자의 뜻으로서, 반드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기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말인 듯한데,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sup>45)</sup>

③ 성의장(誠意章) 부주의 ‘필불해심질(必不害心疾)’을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質疑)》에 “이것은 윗글과 연속되지 않는다. 혹시 교전(交戰)을 논할 때에 어떤 사람이 심질에 대해서 말하였기 때문에 이어서 이것을 언급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심질은 교전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심질로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였습니다.<sup>46)</sup>

④ ‘불해심질(不害心疾)’의 ‘불해(不害)’는 ‘불환(不患)’의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sup>47)</sup>

⑤ 심질에 해롭지 않다.[不害心疾]

퇴계는 말하기를, “심질(心疾)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였고, 율곡은 말하기를, “해(害) 자는 환(患) 자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 하였다.<sup>48)</sup>

위와 사례들과 같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심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경연에서 이야기되기까지 하였다. 조선에서 인식한 심질은 마음속에서 마음들이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는 병이었다.<sup>49)</sup> 즉 심질은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의 기능 문제보다는 마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이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심질의 발병 원인을 보면 조선이 심질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여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성리학을 공부하여 무엇이 마음속에 심질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고, 인욕을 배제해 심성(心性)을 고요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갈고 닦아야 했다.

심기가 동요할 때마다 허화(虛火)가 올라 사려가 어지러워지면 경계(驚悸)의 증세가 따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좋은 약이 있어도 쉽게 효력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자(朱子)의 말씀에 ‘병중에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오로지 마음을 안정하고 기운을 기르는 데에만 힘써야 한다.’고 하였으니...<sup>50)</sup>

위 기사를 보면 조선은 심기가 동요할 때 심질의 증상이 찾아온다고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양심(養心)을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심질의 치료를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도록 심성을 수양하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었다.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일에서 손을 떼고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야 했다. 이지함은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혼자 방안에서 벽만 보고 지내며 치료했다고 한다.<sup>51)</sup>

45) 『농암집』 제12권 서(書), 우재 선생께 올리는 《심경석의(心經釋疑)》에 대한 문목

46) 『대산집』 제19권 서(書)

47) 『동춘당집』 별집 제6권 경연일기(經筵日記)

48) 『사계전서』 제19권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49) “심질(心疾)은 교전(交戰)하는 것을 가리킨다. 마음속에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것이다. 성현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지산집(芝山集)』 「심경질의고오(心經質疑考誤)」 심경부주(心經附註)

50)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2월 3일

51) 이지함은 율곡에게 “내가 세상의 길흉과 선악을 시험에 보았더니, 온갖 병 가운데 간질병이 가장 고약합니다.”라고 말하며, 벽만 보고 지내어 겨우 치료했다고 전한다. (『동패락송』 100화)

또한 번잡한 곳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했는데, 특히 정치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질이 발병하면 스스로 사직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질환의 경우 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체직의 사유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된 분위기였다. 그러나 심질은 발병한 자체로 체직의 사유가 되었는데 심각한 정신착란을 일으켜 병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였다. 간질<sup>52)</sup>은 발작을 일으킬 때가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탄핵의 사유가 되었다. 한 관리는 간질을 앓으면서도 참고 세상 사람들 앞에 티내지 않았음을 칭찬하는 기사가 있을 정도였다.

조선 말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최한기는 정신질환이 뇌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sup>53)</sup> 그러나 여전히 이는 감정을 주관하는 신이 심이 아닌 뇌에 깃든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여전히 정신질환을 감정의 문제로 보는 조선의 관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에서 심질은 첫째로 마음을 다루지 못하고, 둘째로 덕을 닦아 세상에 베풀지 못하거나 셋째로 인육을 제거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성리학을 경지까지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병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심질의 이상적인 치료 방법은 마음을 수양하고 성리학을 공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심질의 발병원인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개인에게 있다는 관념은 병의 책임소재를 개인에게 묻는 일이 되었다.

## 2) 조선의 ‘孝’인식에 기반한 단지할고(斷指割股)

심질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전광은 악질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에 치료가 어려운 심질을 이전 시대와 같이 여우 정령이나 한을 품은 귀신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도 하였다. 백약이 무효한 심질의 치료에 있어 사람들은 비성리학적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심질을 치료하기 위해 중을 불러 불침을 놓기도 하였으며,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종종 무당을 불러 곳을 하고 복숭아 나뭇가지로 귀신을 쫓으려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비성리학적 방법으로 공식적으로는 비판을 받는 치료 행위였다. 그러나 성리학 사회에서 의학적 근거 없이 믿음에 기반한 치료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권장되기도 하였다. 효와 충을 통해 심질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와 조선에도 이어졌다.

단지할고(斷指割股)는 손가락을 자르고 허벅지 살을 베어낸다는 의미로 이를 통한 인육치료는 심질 환자에게 손가락이나 허벅지 살을 잘라 먹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다.<sup>54)</sup> 단지와 할고를 통한 인육 치료는 광질(狂疾)이라 부르는 전광병이나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단지할고는 행위의 주체가 피행위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인물이었다. 자식이나 손자가 부모를 치료하기 위해 혹은 아내가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진 치료 방법이었다. 이러

52) 현재 간질의 명칭은 뇌전증으로 변경되었으나 본 고는 조선시대의 정신질환을 다루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되었던 명칭인 간질로 표현하고자 한다.

53) “몸이 천지의 운화(運化)를 따라 선하게 변하기를 기다려야지 약을 써서 치료하여 그 효과를 바라서는 안된다. 전증(顛證)과 광증(狂證)은 병의 원인은 한 가지인데, 그 까닭은 모두 몸의 기를 이루고 있는 신기(神氣)가 교란되어 뇌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뇌는 신기(神氣)가 모여서 결집된 곳으로 뇌에 병이 생기면 신기(神氣)가 교란된다.” 『신기천협』 卷三, 「전광론(顛狂論)」

54) 이경록은 단자에 대해서 ‘인육치료’라고 명명하였다. (이경록(2020), 「몸의 소비: 조선전기의 인육치료」, 『조선전기의 의료제도와 의술』, 역사공간, 128~161쪽)

한 치료 방법은 조선에서 삼강(三綱)의 도리를 훌륭히 보여주었다는 명목으로 표창되었다. 이러한 단지할고를 이용한 심질의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은 아니었으나 조선 초부터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효(孝)이다.<sup>55)</sup> 『논어』에서는 인의 실천에 있어 효행을 우선시켰으며, 효를 도덕적 행위의 근본으로 보았다. 『효경』에서도 효를 백행(百行)의 근본으로 여겼다. 이러한 효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 또한 효자가 충신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삼강이 바로 서야 지치(至治)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리학 국가 건설을 위해 효를 강조하였다. 효가 덕치(德治)의 바탕이 되게 한 것이다.<sup>56)</sup>

사람이 행해야 하는 도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멀리서 찾고...사람들이 자기 아버이를 어버이로 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sup>57)</sup>

맹자는 사람이 행할 도는 가까운 곳에 있으며 아버이를 어버이로 여기는 효를 다한다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세종이 효행에 크게 주목한 왕이었다. 지방마다 직접 방문하여 효자를 선발하게 하였는데, 특행(特行)을 기록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sup>58)</sup> 일상적인 효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허실(虛實)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행위를 취한 효자를 기록하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추천자는 명백한 증거와 흔적이 남은 효행을 추천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할고와 삼년상 같은 눈에 보이는 효행을 중시하는 풍토를 형성하게 했다.<sup>59)</sup>

효는 특히 동양의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의 장종정(張從正)의 『유문사친』은 의학서적이면서도 효의 의미를 담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금원사대가의 이정(李挺)은 의서의 깊은 뜻은 유가가 아니면 밝힐 수 없고, 약품과 술, 음식은 효자가 아니면 다 갖출 수 없다고 하였다.<sup>60)</sup> 의학은 효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람이 질병을 앓는 상태를 불인(不仁)이라고 하며, 의술을 인술(仁術)이라고 불렀다. 의원에게는 환자에 대한 인애(仁愛)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인(仁)의 실천 방법이 바로 ‘효’라고 생각했다.

단지할고는 효를 통한 의료 행위로 행위자는 표창과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성리학에서 인정하는 효행과는 배치되는 행위였다. 『효경』의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에 따라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하는 것은 중도(中道)가 아니었다. 그러나 조

55) “...둘째는 효도와 공경을 높이는 것이니, 효도라는 것은 인륜(人倫)의 근본이요, 왕화(王化)의 근원입니다...” 『세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8일

56) 효와 정치·의학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근우, 「유가사상(儒家思想)에 바탕을 둔 한의학에서의 의료윤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3, (2009): 149~168, 2009. ; 김덕균, 「『세종실록』을 통해 본 조선 초 효문화의 특징과 문제」, 『효학연구』 19, 31~65, 2014. ; 김덕균, 「효자전, 감성과 이성의 사이-조선 초 효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55輯, (2021.5): 19~49, 2021.

57) 『맹자』, 「이루 상(上)」 11

58)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중외에 교서를 내리어, 효자·절부(節婦)·의부(義夫)·순손(順孫)이 있는 곳을 찾아 실적(實迹)으로 아뢰라고 했더니, 무릇 수백인이 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그 중에 특행(特行)이 있는 자를 추리라.”(上初即位, 下教中外, 求孝子、節婦、義夫、順孫所在, 以實迹聞, 凡數百人。 上以爲宜簡特行)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1일

59) 김덕균, 「효자전, 감성과 이성의 사이-조선 초 효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55輯, (2021.5): 19~49, 2021, 27쪽

60) 김근우, 「유가사상(儒家思想)에 바탕을 둔 한의학에서의 의료윤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3 (2009): 149~168, 2009, 152쪽

선에서는 단지할고를 통한 치료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표창하고 포상까지 하였다.

특히 세종은 단지할고를 통한 효행에 긍정적이었는데, 실록을 보면 세종대에 단지할고에 대한 기사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강행실도』에 기재된 효자는 총 111명이다. 이 중 108명은 중국의 효자와 효녀이며, 나머지 23명이 삼국시대에서 조선까지의 효자와 효녀이다. 그러나 중국의 효자와 효녀 중 단지할고와 관련된 이는 단 2~3명에 불과하다. 반면 나머지 23명 중 8명이 단지할고와 관련되어 있다.<sup>61)</sup> 이는 성리학에서 단지할고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뜻하며, 조선은 조선만의 성리학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그 몸을 상하게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의 중도(中道)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효행(孝行)이 족히 민심을 감동케 하고, 명교(名敎)에 관계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으니, 그 아버가 병든 지 4년 동안에 자기 옷끈을 한 번도 풀지 아니하고 좋은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아니하여, 과리한 몸이 되었으니, 그것이 첫째이고, 날마다 의원과 약을 구하는 일만 하느라고 비록 그 동리 사람이나 족친들의 모임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둘째이고, 부모를 섬기는 데 그 낮빛을 살피 가며 순하게 받들 뿐이며, 비록 그 아버가 어렵고 큰 일을 하라 하여도 일찍이 부모의 마음을 거스린 적이 없는 것이 세째이고, 그 고을 사람들이 그 효행(孝行)을 칭찬하면 곧 하는 말이, 이것은 자식의 도리로 떳떳이 할 일이니, 족히 말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남들이 혹 알까 두려워 하는 것이 네째이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인민들이 감화하여 이러한 순진한 효자가 이 황벽한 지방에 났으니, 청컨대, 조정에 보고하여 그 문에 정려(旌閭)를 세워, 성조(聖朝)의 효를 빛내고 자식된 사람의 마음을 격려케 하소서."

하였다. 도관찰사(都觀察使) 신호(申浩)가 이것을 나라에 올리니, 명령하기를, "그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고, 그 사람의 이역(吏役)을 면제하게 하라." 하였다.<sup>62)</sup>

단지할고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효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위 기사처럼 조선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단지를 통해 부모를 치료하려 하였던 효행은 민심을 감동하게 한다고 여겼던 의견에 더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보인다. 효자가 나는 것은 임금의 효도로 나라를 다스려 인민들이 감화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왕과 대부분의 신료들은 단지할고를 통한 치료를 효행이라고 추켜세웠다.<sup>63)</sup>

단지와 할고의 행위 주체는 앞서 말했듯 주로 자식이나 부인 등 밑에서 위로 행해지던 행위였다. 또한 실록에 나타나는 단지와 할고의 주체들을 보면 대부분 양민이나 노비 등 사회적 신분 또한 미천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조선은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효행이라고 규정하였고, 이들의 효행을 통해 성리학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sup>64)</sup>

앞서 말했듯 단지와 할고를 통한 인육치료에 대해 조선의 의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

61) 효자와 효녀의 통계는 이경록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경록은 『삼강행실도』를 분석하여 효자와 효녀를 분석하여 조선이 자국의 단지할고 경험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경록(2020), 「몸의 소비: 조선전기의 인육치료」, 『조선전기의 의료제도와 의술』, 역사공간, 25쪽

62)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8일

63)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인민들이 감화하여 이러한 순진한 효자가 이 황벽한 지방에 났으니"(恭惟聖上以孝治國, 人民感化, 有如此純孝者, 出於荒僻之地)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8일

64) 김덕균은 조선이 약자 보호를 위한 충효열의 강조가 아닌 강자를 위한 강제적 통치 질서 확립에 약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덕균, 「효자전, 감성과 이성의 사이-조선 초 효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55輯, (2021.5): 19~49, 2021, 28쪽)

다.65) 심질의 치료를 위해 단지와 할고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성리학자는 대부분 의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인육치료가 근거가 없다는 것은 당시 관리나 임금 또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할고를 말리기보다는 표창과 보상을 통해 오히려 권장하고 있었다.

심질은 악질이라고 불리며, 의서에서도 쉽게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할 정도의 질병이었다. 실록에서 단지할고의 사례를 보면 심질 치료에 성공했다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병이 단지할고를 통해 치료되었다는 소식은 절박한 심질자의 가족들에게 희망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인육을 통한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명지나 허벅지 살을 베어낸 후 피는 바로 환자의 입으로 흘려 넣는다. 그 후 손가락과 허벅지 살은 구워서 먹거나 고아서 국으로 먹기도 하고, 빵아서 환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인육을 말려 그대로 먹게 하거나 뺏가루를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다음은 실록에서 볼 수 있는 단지할고를 통한 심질의 치료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2> 심질에 대한 인육 치료 사례66)

병명	시대	사례
전간	태종	서북면(西北面) 안주(安州) 사람 조존부(趙存富)의 집을 정표(旌表)하게 하였다. 조존부는...나이 12살에 그 어미의 간질(癲疾)을 민망하게 여기어 산 사람의 뼈로써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칼로 그의 바른 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 술을 구해다가 마시게 하니, 병이 곧 나았으므로...또 그 집을 복호(復戶)하였다. <sup>67)</sup>
	세종	경상도 곤양(昆陽) 사람 진겸(陳謙)의 아버지가 간질(癲疾)로 고생하였는데, 겸이 손가락을 잘라서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먹었더니 즉시 나았으므로, 그 사실이 보고되자 관직을 제수하게 하였다. <sup>68)</sup>
	단종	경주(慶州) 사람 허조원(許調元)은 나이가 열 네 살인데,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간질(癲疾)을 앓으니 손가락을 끊어 <피를> 약에 타서 올리니 그 병이 곧 나았고... <sup>69)</sup>
		평안도 안주(安州)의 향리(鄕吏) 오유린(吳有麟)은 그 아버지가 간질(癲疾)에 걸리자 왼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서 약을 지어 바쳐 병이 나았고, 뒤에 어미가 또 간질(癲疾)에 걸리니 오른손의 무명지를 잘라서 약을 지어 바쳐 또한 병이 나았으며, ... <sup>70)</sup>
	세조	"경원(慶源)에 거주하는 양녀(良女) 잉화이(仍火伊)가 그 남편 김인득(金仁得)이 전질(癲疾)로 여러 해 동안 고생하는 것을 상심(傷心)하고...즉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약에 타서 먹여 구제하였으니...나라의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하소서." <sup>71)</sup>
	성종	같은 고을 사람 최운손(崔雲孫)은 스스로 무명지(無名指)를 끊어 그 아버지의 간질(癲疾)을 치료하였으니, 두 사람의 효행(孝行)이 가상(嘉尙)합니다.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정문(旌門)·복호(復戶) 하게 하소서." <sup>72)</sup>
	중종	경상도 청송부(靑松府)의 정병(正兵) 이계남(李繼男)은 형 계동(繼宗)이 간질

65) 이경록은 『본초습유』를 제외한 어떠한 의서에도 살아있는 인체를 이용한 치료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서술했다. 『본초습유』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경록(2020), 「몸의 소비 : 조선전기기의 인육치료」, 『의료사회사연구』 제4집: 5~37, 2020, 11쪽)

66)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여 심질에 대한 인육치료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심질의 증상은 인육치료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광증과 전간(癲癇: 전질과 간질로 뇌전증을 말함)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키워드는 광질(狂疾), 전광(癲狂), 광병(狂病), 간질(癲疾), 전질(癲疾)이다.

		을 앓는데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먹이고 재발하니 다시 손가락을 끊었는데...상주고 복호(復戶)하였다. <sup>73)</sup>
광증	세종	"현리(縣吏) 석진(石珍)의 아버가 바람병이 나서...어느 날 중[僧]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들으니, 너의 아버지가 광질(狂疾)이 있다니, 참 그런가.' 하였다. ...중이 말하기를, '그 병에는 산 사람의 뼈를 갈아 피에 타서 먹이면 나은 것이다.' 하였다. 석진은 곧 자기의 무명지(無名指)를 잘라 피에 타서 드리니, 병이 조금 낫고, 두 번째 먹이니, 병이 다 나왔다.... <sup>74)</sup>
		평안도 곽산군(郭山郡)의 백성 김마연(金磨彦)의 처가 전광병(顛狂病)에 걸리니...그 딸 사월(四月)이 사망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구하였는데, 방문에 살아 있는 사람의 뼈를 부수어 먹으면 즉효라는 말이 있으므로, 사월이 곧 왼손 무명지를 잘라 빵아 가지고 국에 타서 먹었는데, 병이 낫게 되었다...명령을 내려 그의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고, 그 집의 부역을 영구히 면제시키게 하였다. <sup>75)</sup>
		평안도 수천(隨川) 사람 양석삼(梁石三)의 아버 김금(檢金)이 전광병(顛狂病)이 발작하니, 석삼이 그 손가락을 잘라서 구워 먹었던 바 병이 나왔다. 이 사실을 보고하매 명하여 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를 하게 하였다. <sup>76)</sup>
		서흥(瑞興) 사람 김여도(金汝島)의 딸 김효생(金孝生)이 나이 12세에 그 아버가 광질(狂疾)을 앓았는데, 산 사람의 뼈를 먹으면 즉시 낫는다는 말을 효생이 듣고 비밀히 사람을 시켜 제 손가락을 자르게 하고 부모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3일 만에 국에 넣어서 먹이니, 아버의 병이 조금 나왔다...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sup>77)</sup>
		창원부(昌原府) 사람 김효량(金孝良)은 나이 15세에 아버지가 미친 병을 얻자, ...산 사람의 뼈가 가장 좋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 볶아 말리어서 가루를 만들어 술에 타서, 이를 마시게 했습니다. ...김효량(金孝良)...등은 정문(旌門)을 세우고 서용(敍用)하게 하며... <sup>78)</sup>
		은산(殷山) 사람 김상택(金尙澤)이 전광병(顛狂病)을 얻었는데, 그의 몇째 딸 김은태(金銀台)라는 아이가 나이 13세로서, 사람 뼈라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바른쪽 손가락을 잘라 곱게 갈아서 이를 떡 속에 넣어 먹었더니 그 아버지의 병이 드디어 나왔다...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하게 하였다. <sup>79)</sup>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진주(晉州) 사람 부사직 진자완(陳自完)이 미친 병이 들었는데, 그 아들 겸(謙)이 나이 18세인 산 사람의 고기가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손가락을 잘라 말리어 가루를 만들어 술에 타서 올렸더니, 그의 아버의 병이 낫다고 하오니, 정문을 세워 주고, 관직을 제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sup>80)</sup>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정주(定州) 사람 손귀생(孫貴生)의 딸 손면시(孫面時)는 나이 13세인데, 그 어미가 미친 병에 걸렸습니다. 면시가 산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손가락을 잘라서 술에 타서 먹었더니, 그 어미의 병이 나았습니다. 청하옵건대,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게 하소서."... <sup>81)</sup>
		황해도 서흥(瑞興) 사람 소금(小今)은 나이 열 세 살인데 아버지가 미친병에 걸리니,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서 피를 흘려 약(藥)을 타서 마시게 하였더니 아버지의 병이 곧 나았다고 합니다...청하건대, 모두 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하여 절의(節義)를 권려(勸勵)하게 하옵소서."... <sup>82)</sup>
	성종	칠원(漆原) 사람 학생(學生) 송한문(宋漢文)은 어미가 미친 병을 얻었는데, 송한문이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서 가루를 만들어 술에 타서 드리니, 병이 마

	<p>침내 나왔습니다.<sup>83)</sup>          평양 토관(平壤土官) 김경리(金京利)의 아버지는 미친 병을 얻었고…김경리…가 왼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 약에 타서 올리어 그것으로 차유(差愈) 하였으니, …청컨대 소재(所在)한 고을로 하여금 정문 복호(旌門復戶) 하게 하소서.<sup>84)</sup></p> <p>"의령현(宜寧縣)의 사람 이임종(李林宗)은 그 아버지가 미친병[狂疾]을 얻어 매우 위태로왔는데…손가락을 끊어서 죽(粥)에 타서 드렸으며…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정문(旌門) 복호(復戶) 하게 하소서."<sup>85)</sup></p> <p>예조(禮曹)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산현(高山縣)에 사는 김윤손(金允孫)은 그 아버지가 광질(狂疾)을 앓는데,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서 바쳐 아버지의 병이 곧 나았으므로, 효행(孝行)이 가사하니,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상직(賞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86)</sup></p> <p>박기(朴琦)는 영산(靈山) 사람인데, 그 어미 공씨(孔氏)가 광질(狂疾)497)에 걸려…스스로 왼쪽 무릎 위의 살을 베어 화갱(和羹:여러 양념을 해 간을 맞춘 국)을 만들어 바쳐 어미의 목숨을 잇게 함으로써…유사(有司)에 명하여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도록 하였다.<sup>87)</sup></p>
연산군	<p>배경동(裨敬同)은 어미가 광증(狂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 나올 수 있다.' 하자, 곧 손가락을 잘라 기름에 구워 먹으니, 병이 과연 나왔습니다.<sup>88)</sup></p>
중종	<p>영천(榮川)의 학생(學生)823) 안수철(安壽鐵)은 나이 열 다섯에 아버지 안제(安濟)가 광질(狂疾)을 앓아 고칠 수 없게 되니 안수철이 작도(斫刀)로 왼손의 네째 손가락을 잘라서 약으로 썼습니다."<sup>89)</sup></p> <p>이소는 그 어미가 광질(狂疾)이 있었는데 손가락을 잘라 그 어미에게 먹였으며…전교하기를, "천거한 사람 중에 특출한 사람은 시체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sup>90)</sup></p> <p>"의흥(義興)에 사는 양녀(良女) 유금(有今)이 그의 조부 박사명(朴思明)이 미친병을 얻어…유금이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먹이니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유금은 부모가 모두 죽고, 한두 살 때부터 그의 조부에게서 컸다고 합니다."<sup>91)</sup></p> <p>유학(幼學) 유인석(劉仁碩)은…아버지 유계선(劉繼先)이 광질(狂疾)에 걸려…온갖 약을 써도 효험이 없자 손가락을 끊어 효험을 보았다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얘기를 보고, 몰래 도끼를 가져다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 불에 태운 다음 이를 뺏아 물에 타서 드리니, 그 병이 드디어 치유되었습니다.<sup>92)</sup></p>
명종	<p>백성 이개미치는 울진인(蔚珍人)이다. 나이 18세 때에 어머니에게 광병(狂病)과 학질(癩疾)이 동시에 발작되어…이개미치가 자기의 손가락을 끊어 불에 태워 술에 타서 먹이니 그 병이 즉시 나왔다.<sup>93)</sup></p> <p>강씨는 하동인(河東人)인데 정병(正兵) 최영(崔泳)의 아내이다. 아버지가 광질(狂疾)을 앓자 강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불에 태워 먹이니 병이 즉시 나왔다.<sup>94)</sup></p> <p>정주(定州) 거주 내수사 노(內需司奴) 학룡(鶴龍) 【나이 겨우 9세에 그 어미가 광병을 얻어 날마다 발작하였다. 학룡이, 그 병에는 그 자식의 무명지(無名指)를 가져야만 효험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웃에 사는 동료 중을 찾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달라고 하였다.…손수 재차 절단하여 그 어미에게 드렸는데 어미의 병이 영원히 나아 지금까지 생존해 있으니, 그 성효(誠孝)의 지정(至情)이 천성(天性)에서 나왔다.】<sup>95)</sup></p>

위 사례를 종합해보면 단지할고를 통한 심질의 치료 사례는 총 29건이다. 그중 전간의 치료는 7건, 광증의 치료는 22건으로 집계된다. 태종 대에 전간 1건, 세종 대에 전간 1건과 광증 9건, 단종 대에 전간 2건, 세조 대에 전간 1건이 발견된다. 또한 성종 대에 전간 1건과 광증 5건, 연산군 대에 광증 1건, 중종 대에 전간 1건, 광증 4건, 명종 대에 광증 3건이 나타난다.

위 표를 통해 실록에서 단지할고의 실패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록은 성공사례만을 기재되어 있으며, 실패한 사례는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할고에 실패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 당시 양반들의 개인 문집에서는 단지할고를 통한 심질 치료의 실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sup>96)</sup>

그러나 실패 사례에 대해 양민들은 전혀 알 수 없었고 조선 조정 또한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 단지할고의 성공사례만 기재된 것은 오로지 조선의 선택이었으며, 성리학 국가 건설을 위해 의도된 일이었다.

단지할고를 하면 물질적인 보상과 관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당시 양민들에게는 탐낼 만한 포상이었을 것이다.<sup>97)</sup> 또한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심질이 인육으로 치료되었다는 소

- 
- 67)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2월 1일
  - 68)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0월 4일 기묘 3번째기사
  - 69) 『단종실록』 3권, 단종 즉위년 윤9월 24일
  - 70)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8월 17일
  - 71)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7월 30일
  - 72) 『성종실록』 249권, 성종 22년 1월 23일
  - 73)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30일
  - 74)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8일
  - 75)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6월 27일 입자 2번째기사
  - 76)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3월 23일 계사 3번째기사
  - 77)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4일
  - 78)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3일
  - 79)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6월 12일
  - 80)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3월 26일
  - 81)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0일
  - 82)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8월 14일
  - 83)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7일
  - 84) 『성종실록』 22권, 성종 3년 9월 16일
  - 85)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3일
  - 86)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1일
  - 87)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0일
  - 88) 『연산군일기』 43권, 연산 8년 3월 15일
  - 89)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6일
  - 90)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2월 26일
  - 91) 『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1월 11일
  - 92)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7월 25일
  - 93) 『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윤5월 21일
  - 94) 『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윤5월 21일
  - 95)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1월 19일

96) 이경록은 『무열록』과 『묵재일기』에서 단지의 실패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이경록, 「몸의 소비 : 조선전기의 인육치료」, 『의료사회사연구』 제4집: 5~37, 2020, 26쪽)

97) 이경록은 실록에 기재된 단지할고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신분이 낮은 점을 들어 그들에게 주어질 경제적, 사회적 보상이 탐낼만한 것이라고 서술했다. (이경록, 「몸의 소비 : 조선전기의 인육치료」, 『의료사회사연구』, 제4집: 5~37, 2020, 23쪽); “말세(末世)에 거짓이 늘어나 풍속이 야박해지고 인심이 교활하여졌으니, 그 가운데에는 본심(本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예(名譽)를 구하기 위해 한 자도 또한 많을 것이다”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3월 29일

식은 병에 지친 심질 환자의 부양가족이나 심질 환자 모두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의도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조장으로 점차 의학적 근거도 없는 인육 치료는 심질을 치료법으로 굳어져 갔다.

<표-1>을 보면 조선 후기부터 단지할고를 통한 심질 치료의 기사가 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조선에서 단지할고를 심질 치료에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육치료가 실록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근절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육을 먹으면 심질이 낫는다는 괴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후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산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전광이 치료된다는 식의 괴소문이 퍼져 심질을 치료하기 위해 납치와 살인을 통해 인육을 얻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sup>98)</sup>

조선에서 성리학의 홍보를 위해 시작했던 단지할고를 통한 심질 치료의 홍보가 조선 후기에 와서는 각종 강력 범죄를 만들어낸 원인이 된 것이다. 인육으로 심질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은 심질에 대한 인식의 악화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각종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자 조선은 더는 단지할고를 통한 심질의 치료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효자·순손(順孫)·절부(節婦)는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성리학적 관념이었으며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sup>99)</sup> 그러나 사료에서는 조선 중·후기부터 단지할고의 표창 사례는 줄어든다. 심질의 치료를 위해 자행되었던 납치와 살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 초부터 성리학자들은 이미 단지할고 자체가 성리학에 위배 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sup>100)</sup> 이와 함께 단지할고를 권장하는 목적이었던 ‘효’라는 관념이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내재화되어 홍보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3. 심질에 대한 제도와 처우

#### 1) 성리학적 관념에 의한 심질 정책

병이 들어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구휼하는 것은 고대부터 왕이 수행하던 일이었다. 이러한 구휼은 유교적인 관념 아래에서 이루어져 왔다.<sup>101)</sup> 고려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신라의 정책이 이어졌으며, 조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다만 신라와 고려에서 구휼을 받는 병든 자의 대상은 신체질환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02)</sup>

98)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정신병 치료에 인육을 먹으면 낫는다는 미신이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정신병이 낫는다는 미신으로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에서 외인편넙적다리살을 베내어 정신병자에게 메기였다는...) 「情神病治療目的한 人肉切取公判」, 『조선일보』, 1934.05.24

99) “요사이 강상(綱常)의 변이 잇달아 종이 상전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지아비를 살해하기도 하여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시골 부녀자와 친한 노예로서 오히려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로 또한 천리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만일 임금이 그 고유(固有)의 천리를 인하여 충효(忠孝)와 의열(義烈)로 지성으로 위에서 인도하고 통솔해 간다면 오도(吾道)를 잘 따를 것이다...”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3월 29일

100) “대개 그 몸을 상하게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의 중도(中道)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8일

101) 김삼섭과 나정희는 환과고독 및 노질자에 대한 위무가 『예기』 등 유교경전에 근거한 것임을 말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국왕이 유교적 도리에 입각해 백성을 다스리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삼섭, and 나정희, 「고려시대 장애인 정책 연구」, 『특수교육연구』 9.1, (2002): 3~18, 2002, 7쪽)

102) 『삼국사기』에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기록이 하나뿐이다. (“祿眞進曰, “伏聞寶體不調. 得非早朝晚罷, 蒙犯風露, 以傷榮衛之和, 失支體之安乎.” 曰, “未至是也. 但昏昏校勘嘿嘿, 精神不快校勘耳.”)”)

조선에서는 장애인을 독질과 폐질, 잔질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속하는 병증들을 법령자료에 명시해 놓았다. 독·폐·잔질은 장애인을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명칭이었다.

<표-3> 독질, 폐질, 잔질의 분류<sup>103)</sup>

독질(篤疾)	악질(惡疾), 전광(癡狂), 두눈 장님(兩目盲), 4지(肢) 중 2지(肢) 절단
폐질(廢疾)	백치(痴), 병어리(啞), 난장이(侏儒), 굽사등이(腰折), 4지(肢) 중 1지(肢) 절단
잔질(殘疾)	손가락이 둘이 없거나, 발가락이 셋이 없거나, 손발에 큰 엄지 가락이 없는 자

장애인을 중증도별로 분류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광증을 폐질이라 부르는 등 그리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다.<sup>104)</sup> 폐질에 속하는 증상은 어떠한 병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구제하기 힘든 중한 병증을 지닌 자들을 모두 일컫는 말로 쓰였다.

위 분류 중 전광과 백치는 심질의 증상으로 조선에서 심질은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독질과 폐질에 속하는 심질은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졌다. 이에 세종 8년에 노인과 폐질자를 대상으로 양로 조건을 논하여 스스로 자립할 힘이 없는 이들을 구제하려 하였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노인과 폐질자(廢疾者)를 인애(仁愛)로써 기르라는 것은 이미 세운 법령이 있는데도 중외의 관리들이 이를 소홀히 하여 거행하지 않으니, 그 양로 조건(養老條件)을 의정부와 제조(諸曹)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나이 70세 이상으로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어 타인의 집에 붙어 먹는 자는, 서울의 5부(部)와 외방의 각 고을에서 상세히 조사 고찰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여 상급 관청에 전보(傳報)하여,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여 기한(飢寒)에 빠지지 않도록 하되, 식량은 국고(國庫)의 쌀과 소금·장(醬)을 아울러서 반 년 동안 먹을 것을 지급하고, 옷은 매년 베[布] 2필을 지급하며, 각 고을에서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어육(魚肉)과 채과(菜果) 등으로 적당히 지급하여 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서울은 사헌부에서, 외방은 감사가 엄중히 규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105)</sup>

위 기사를 보면 폐질자를 구제하기 위해 조선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만들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의 구휼제도는 심질 환자에게 일정한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게끔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

『三國史記』 卷第四十五 列傳 第五 祿眞 ; 때문에 자료의 부족으로 병든 자에 정신질환이 포함되어 구휼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김삼섭과 나정희는 『고려사』에 등장하는 폐질자에 대한 40건의 기록을 조사하여 폐질자가 오늘날의 신체장애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김삼섭, and 나정희, 「고려시대 장애인 정책 연구」, 『특수교육연구』 9.1, (2002): 3~18, 2002, 15~16쪽)

103) 경국대전의 기준에 따라 독질, 폐질, 잔질을 표로 정리하였다. “篤疾, 惡疾·癡狂·兩目盲·二肢折也, 廢疾, 痴·啞·侏儒·腰折·一肢廢也。” 『經國大典』 兵典 免役 [總論]

104) “광증뿐만이 아니라 병어리·귀머거리·절름발이·장님과 같은 종류가 모두 폐질이니”(謂之廢疾則非但狂易也。如啞聾跛躄瞽矇之類。皆是廢疾。) 『송자대전』 부록 제18권 어록(語錄) 5

105)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 7월 18일

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가족과 이웃조차 없는 이들에 한정된 것이었다. 위에서 물질적 보상을 통해 단지할고와 ‘효’ 관념을 홍보한 조선의 전략이 통했던 것을 확인했다. 이는 조선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이에게는 따로 충분한 물질적인 지원이 제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선에서 장애인 부양정책은 가족부양이 원칙이었다. 마땅한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이웃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이조차 여의치 않다면 나라에서 나서서 구제하였다.

환과 고독(鰥寡孤獨)·노유(老幼)·폐질자(廢疾者) 가운데 산업(產業)이 있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궁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우대하여 진휼 구제하여 살 곳을 잃지 말게 하라.<sup>106)</sup>

위 기사는 편민사의(便民事宜) 13개조 중 한 조항이다. 조항의 내용을 통해 당시 장애인이 산업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진휼하게끔 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무항산 무항심”에 대한 성리학적 관점과도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 도성 내에서 심질을 앓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경우 혜민서에서 거두거나 해당 소재지의 수령에게 일러 상시 보살피도록 했던 사례를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호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창현(高敞縣)에 나이 8, 9세 된 계집아이가 있어 미친 병을 얻었는데 부모와 족친이 없사오니, 청컨대 양미(糧米)를 하루에 한 되씩을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하게 하고, 아울러 수령에게 일러 상시 존휼(存恤)하여 춥고 굶주림에 이르지 않도록 하게 하였다.<sup>107)</sup>

②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갔는데, 성(城) 북쪽에서 우는 소리가 있음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이를 찾아보니 곧 미친 여인(女人)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우는 것이었다. 전교(傳敎)하기를, "미친 여인들이 초야(草野)에서 노숙(露宿)하니, 진실로 불쌍히 여길 만하다. 비록 집은 없더라도 반드시 친구는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꼭진히 구료(救療)를 베풀게 하라." 하고, 마침내 명하여 근본 내력(來歷)을 찾아 물어보게 하니, 그 한 사람은 삭녕(朔寧)에서 왔고, 한 사람은 개성(開城)에서 왔는데, 모두가 미친 병에 걸려 사는 곳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빌어먹고 있었다. 임금이 이들을 혜민서(惠民署)에 두고 구료(救療)하도록 하고 내의(內醫)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날마다 주식(酒食)과 어육(魚肉)을 주도록 하였다.<sup>108)</sup>

위 두 사례는 조선이 심질 환자에 대한 진휼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심질을 앓는 사람이 거리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 조선의 조정으로 보고가 올라간다. 그 후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족친이나 친구가 있는지 내력을 조사하고, 조사 후 부양할 족친이 없다면 혜민서에서 거두어 보살핀다. 또한 심질 환자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수령에게 일러 상시 존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진휼 제도는 병자를 보살피고 부양하는 것은 백성을 보살피야 하는 사대부들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로 여겨졌기에 나온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 덕분에 심질을 앓는 환자는 증상이 심각할 경우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면역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심질자가 부역과

106)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107)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3월 1일

108) 『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8월 17일

군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은 경국대전 등 법령자료와 호적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① ……軍士年滿六十者·篤疾·癡疾者, 竝免役<sup>109)</sup>

② 군사로서 나이 만60세가 된 사람과 독질(篤疾)이나 폐질(癡疾)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역을 면제해 준다. 역이 있는 모든 사람도 같다. 독질은 악성질병(惡性疾病), 전광병(癲狂病), 양쪽 눈이 다 멀어져 보지 못하는 상태, 2지(肢)를 절단한 상태이고, 폐질은 백치(白痴), 병어리, 난쟁이, 허리가 꺾어진 상태, 1지(肢)를 못 쓰는 상태이다. 백치는 병신(病身) 같은 행동을 하는 모양이고, 난쟁이는 키가 작은 모양이다.<sup>110)</sup>

③ 군사로서 나이 만60세가 된 사람과 독질(篤疾)이나 폐질(癡疾)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역을 면제해 준다.-역이 있는 모든 사람도 같다.-<sup>111)</sup>

위 법령의 조항을 보면 당시 독·폐질에 속하는 전광병과 백치가 군역 면제의 대상으로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이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정신적인 문제 또한 군역을 지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호적대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호적대장의 직역에는 병인(病人)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직역에 기재된 병인들 중에는 그들이 앓았던 자세한 병까지 기재되어 있는 이들도 있다. 직역에 기재되어 있는 심질은 그들이 군역을 면제받았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4> 울산부, 대구부, 단성현 심질자<sup>112)</sup>

지역	식년	면(面)	대호(代戶)	호내위치(戶內位置)	직역(職役)	명(名)	나이	변동
울산부	1687	온양면(溫陽面)		솔동생(率同生)	발광병인(發狂病人)	녹명(魯命)	34	
	1720	청량면(靑良面)		주호	발광병인환부사노병영장방하전(發狂病人鰥夫私奴兵營長房下典)	도사리(道沙里)	41	
	1765	온양면(溫陽面)		솔자(率子)	금미보(禁米保)	개질동(介叱同)		발광출(發狂出)
단성현	1735	도산면		제(弟)	간질병인(癩疾病人)	양필(良必)	17	
대구부	1687	성평곡면		주호	부안부수보	정일룡	63	

109) 『經國大典』, 兵典, 免役, 總論

110) 『典錄通考』, 兵典, 免役

111) 『대전통편』, 병전(兵典), 면역(免役), 군사면역(軍士免役)

112) 『단성현호적대장』, 『대구부호적대장』, 『울산부호적대장』에서 나타난 심질 증상을 가진 환자를 추려 정리했다. 『울산부호적대장』은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에 게재된 전산화 파일을 이용했다. 『단성현호적대장』은 대동문화연구원에 게재된 전산화 파일과 심재우의 논문을 통해 정리했다.(심재우, 「단성현 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존재양태」, 『朝鮮時代史學報』, 36.~: 179~209, 2006, 187쪽); 『대구부호적대장』은 대동문화연구원에 게재된 전산화 파일을 이용해 정리했다.

		(省平谷面)			순아병광병인(府案付水保巡牙兵狂病人)	(鄭日竜)		
	1723	각북면(角北面)	조계창발광 위승대처(曹戒昌發狂爲僧代妻)	주호		김소사(金召史)	34	
	1723	각북면(角北面)	유학현우갑 발광도망대(幼學玄禹珮發狂逃亡代)	주호	奴	건리금(件里金)	42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호적은 17세기 이후의 것으로 조선시대를 전반적으로 아우른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조선 후기에 지방에서 장애인과 심질 환자의 실태에 대해 단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호적대장은 군역수취대장의 성격을 지니는 관찬 사료이다.<sup>113)</sup> 표에서 보이는 발광병인과 간질병인은 각각 심질에 속하는 병으로써 군역 면제의 대상이었다. 심질의 병증은 대부분 직역 면에 기록되어 있으나 대호와 변동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선은 심질을 앓아도 상속에 대한 권리를 공평하게 나누어 받았다. 이러한 권리를 타인이 강제로 빼앗아간다면 사회적 비난과 벌을 피할 수 없었다.<sup>114)</sup> 명종 19년 경상도 대구에 거주하는 진 현감 유예원(柳禮源)의 아들인 학생 유연(柳淵)을 처형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광증을 앓는 형 유유(柳游)를 죽이고 만이의 재산을 송두리째 차지하려 하였다는 죄목이었는데, 이 죄로 인해 유연은 능지처사(凌遲處死)를 면치 못했다.<sup>115)</sup>

당시 조선은 심질 환자라고 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조선은 심질 환자라 하더라도 모두 삼강의 질서 안에 편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다. 이견손이 그의 아버지 이서(李徐)가 미친병이 들자 발에 쇠사슬을 묶어 방에 구속한 일이 드러났다. 조정에서는 신료들이 모여 이 일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논의는 다음과 같다.

① 영의정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견손이 과연 겨울철에 그의 아버를, 마루방[板子房]에 둔 채 따뜻하게 옷을 입히지도 않고 발에 사슬을 채워서 매어 놓아 마음대로 앉고 눕지도 못하게 한 것은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니, 그의 죄악이 매우 큼니다... 방한(防閑)하는 일은 마땅히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이지만, 그의 아버의 미친 병이 반드시 발에 사슬을 채워 매 놓아야 비로소 방한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찬성 이손(李蓀)의 의논도 이와 비슷하였다.<sup>116)</sup>

② 좌의정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그의 아버가 미친 병이 들었으면 자식된 자 마땅히 못

113) 심재우, 「단성현 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존재양태.」, 『朝鮮時代史學報』 36, -: 179~209, 2006, 192쪽

114) 조선은 장애인을 해칠 경우 비장애인을 해칠 때 보다 더 엄한 벌을 받았다.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글항아리, 2011, 106쪽)

115)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3월 20일

하는 일 없이 보호를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니, 요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의 몸을 편하게 할 뿐인데, 어찌 차마 발에 사슬을 채우고 베옷을 입혀서 겨울에 냉방(冷房)에 두고서 자유롭게 앉고 눕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차마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律)을 상고하여 죄를 결정하여 인도(人道)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성희안의 의논도 이와 비슷하였는데, 상이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sup>117)</sup>

③ 견손의 아들 효순(孝順)이 상서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종부시가 아뢰기를, "서의 발에 사슬을 채운 것이 비록 보성군이 한 일이라 할지라도, 보성군이 이미 죽었는데도 견손이 그 아버지의 사슬을 풀지 않았으니, 이것은 **자식된 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며, 또 **봉양을 삼가지 않았으므로**…상언을 수리(受理)하지 마소서." 하였다.<sup>118)</sup>

이 사건에 대해 조정 신료들의 의견은 모두 비슷하다. 김수동의 의견을 보면 이견손의 아버지가 앓았던 심질은 폭력성을 동반하는 심질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런 증세를 보이는 심질 환자를 방한해야 함을 인지하면서도 인륜의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유순정은 심질에 대해 마음을 안정시키면 되는 병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성리학 관점에서 보는 심질에 대한 인식과 맞물린다.

마지막으로 이견손의 아들인 효순이 이서의 발에 쇠사슬을 채운 것은 이서의 아버지인 보성군이 한 일이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호소에도 보성군이 죽고서도 쇠사슬을 풀지 않았다고 하며, 자식 된 자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견손의 집안은 조선 왕실의 종실 집안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가진 재산이 양민보다 넉넉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람을 붙여 보살필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쇠사슬까지 채웠을 것이다. 심질의 증상이 심각한 사람을 부양하는 것은 재산이 많은 집도 힘겨운 일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심질 환자를 가족으로 둔 양민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을 것임은 명백하다.

조선은 심질 환자의 방한(防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더불어 심질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보다는 삼강이라는 성리학적 덕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 때문에 위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심질 환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심질에 대한 방한은 그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심질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적장자가 부모의 상복을 입는 것을 상례(常禮)라고 인식했다. 증상이 심각한 심질을 앓는다고 하더라도 병이 상례(喪禮)를 저버릴 이유는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sup>119)</sup>

민업(閔業)이 죽었을 때에 송시열(宋時烈)·민정중(閔鼎重)·박세채(朴世采) 등은 업의 아들 세익이 미친 병이 있어 상례를 주관할 수 없다고 여겨 세익의 아들 민신(閔愼)으로 하여금 대신 참최복을 입도록 하여 마치 아버지가 죽어 할아버지를 승중(承重)하는 것처럼 하였다. 이를 들은 이들이 너나없이 몹시 놀라면서 ‘민신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치고 할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았으니 바로 인륜의 막대한 변고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을 두려워하여 감히 발설하지 못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김우명이 상계 말씀드리니 상이 해조로

116)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6일

117)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6일

118)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6일

119) 『예기』

하여금 조사하여 규명하도록 하였다. 예관(禮官)이 해가 지나도록 덮어두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이 그 죄를 다스리도록 명을 내려 민신이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sup>120)</sup>

위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사대부들은 ‘인륜의 막대한 변고’로 여겼으며 민신은 유배되기까지 한 커다란 논쟁거리이자 사건이었다. 이 논의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섞여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송시열의 의견에 대해서는 서인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봉당 간의 세력 싸움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일을 처음 문제 삼은 김우명은 서인 측 인사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송시열과 완전히 갈라져 남인으로 이적하였으며, 민가에서 올렸던 품(稟)을 예가 아니라 거절하여 돌려보냈던 예조판서 정지화 또한 서인이었다. 그 외에도 송준길, 이유태, 윤증 등 많은 서인 인사들이 민세익을 대신하여 민신이 복을 입은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한편 숙종이 추문하여 죄를 주려 하면 남인의 인사들이 왕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허적은 남인의 거두로 민가(閔家)의 일에 대한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으나 주인과 조객을 별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한 것을 볼 때,<sup>121)</sup> 더더욱 정치적 이해관계만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조선이 중기와 후기를 거치며 조선이 성리학을 뿌리 깊게 내재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 초 조말생이 심질을 앓는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 막내인 조근으로 하여금 봉사(奉祀)하게 하였다. 이 일에 대해 당시 조선의 신료들은 위의 사례와는 다르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sup>122)</sup> 결과적으로도 막내 조근이 적장자를 대신하여 제사를 주관하게 된다.<sup>123)</sup>

조선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위한 덕치(德治)가 근본 정치 이념으로 이는 형법에도 적용되었다. 심질은 관형(寬刑)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대명률』의 폐질자로서 유죄(流罪)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수속(收贖)한다는 “노소폐질수속조(老少廢疾收贖條)”에 따랐다.<sup>124)</sup> 실록에서도 폐질자에 대해 대명률에 따라 처리하는 기사가 나온다.<sup>125)</sup>

120)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9월 9일

121) “세간의 부정한 사람이 남의 재산을 탐내어 다투어 남의 후사가 되어서 적통을 빼앗는 자는 통렬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민신의 이것과는 다르다. 그 정상이 용서할 수는 있어도 미워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제도를 정하여 이 예를 쓰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 주인과 조객을 죄준다면 지나친 것이다.” 『숙종실록』 1권, 숙종 즉위년 10월 15일

122) 우찬성, 황수진, 이승손, 김담은 조영이 절하고 일어날 수 있으며, 국가의 법과 종자의 법을 고쳐 천륜을 어지럽히면 후세에 풍속을 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효문은 조영이 병을 얻어 어리석고 미혹하다면 제사를 받들기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강맹경, 성봉조는 폐질하여 어리석고 미혹하다면 장자라고 하여 무용(無用)한 사람에게 후사를 부탁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신숙주는 두 주장의 단점을 모두 말하였으며, 조말생의 유명(遺命)을 따르되 장자가 제사를 주관할 수 없는 연고가 있다면, 가장(家長)이 관에 고해 사실을 밝힌 후 차자가 주관하고록 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중손은 국가가 알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일이 드러난 이상 경상(經常)의 법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조영이 독질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사를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6일)

123)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6일

124) “대명률을 사용한다.”(用大明律) 『경국대전』 형전 용률(用律) ; “『대명률』의 노소 폐질 수속조(老少廢疾收贖條)에 이르기를, 「무릇 나이 70세 이상과 15세 이하 및 폐질자(廢疾者)로서 유죄(流罪)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수속(收贖)한다.」 하였다.’ 하였으니”(《大明律》老少廢疾收贖條云: 「凡年七十以上、十五以下及廢疾犯流罪以下, 收贖。」)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0월

125) “『대명률(大明律)』 조문을 살펴보면 노유(老幼)와 폐질자(廢疾者)에게는 속진(贖錢)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按《大明律》文, 老幼廢疾者, 許收贖)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7일

조선 초·중기까지 폐질자, 특히 전광으로 실성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히 처결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심질 환자에 의한 살인과 관련된 조항이 생겨났다. 영조 2년 “전광실성살인(顛狂失性殺人)”<sup>126)</sup>이라는 조항으로 전광으로 실성하여 살인을 저지른 자는 감형한다는 내용이다.

대명률의 ‘노소폐질수속’이라는 구문이 있음에도 조선 후기 ‘전광실성살인’이라는 조항이 생겨난 것은 광증에 대해 조선에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심질이라는 특정한 병이 살인이라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인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생겨난 배경에는 조선이 권장하였던 인육 치료와 폭력적 증상을 보이는 심질 환자에 대한 방한 제도의 미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심질은 신체질환과 다르게 허실을 진단해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감형을 받기 위해 구별하기 어려운 심질을 핑계 삼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sup>127)</sup>

심질을 핑계로 삼았던 것은 관리들 사이에서도 종종 보이는 일이었다. 정치적 화를 면하기 위해 심질을 앓고 있으니 사직을 청한다는 신료들을 실록에서 볼 수 있다.<sup>128)</sup> 심질을 핑계로 삼는 일이 흔해지다 보니 조선은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을 것이다.

정약용의 저서에서 나오는 황해도 감사의 말을 통해 조선 후기 거짓으로 심질을 가장하여 살인죄를 면하려는 이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sup>129)</sup> 또한 실록에서도 심질을 앓는 자를 국문하면서 광증의 허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 보인다.<sup>130)</sup>

126) “전광과 실성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다.”(顛狂失性殺人者, 減死定配) 『新補受教輯錄』 刑典 殺獄 1320. [顛狂失性殺人者…](1726년, 영조 2년)

127) “윤구중(尹九宗)은 본래 성한 무리의 과당으로 온 나라가 같은 목소리로 성토하는 때를 당하여 자신이 현임 대간이면서도 성토할 뜻이 없어 갑자기 미친병이라 핑계대고 오로지 피할 길만을 일삼았습니다. …유성한(柳星漢)에 대한 논계가 일어난 후에 갑자기 미친병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미친 증세라는 것도 큰소리로 떠들고 사간원의 아전을 구박하고 꾸짖어 집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미친병으로 말하면 이와는 달라 진실로 미쳤다고 핑계대려면 이는 참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단정하던 선비가 금일 갑자기 고함을 치고 마구 뛰어다니면 문득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 스스로 자기의 심적(心迹)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부터 이 병에 유독 거짓이란 글자를 붙이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윤4월 10일 ; 김호는 “선천적인 광인(狂人)들을 사면하자, 이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벌을 피하려는 자들이 늘어났다. 다산은 이에 대해서도 진광(眞狂)과 가광(假狂)을 엄격하게 구별하고자 했다.”고 서술하였다. (김호, 「『흠휼신서』의 일고찰-다산의 과오설 해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4. - (2010): 233~267, 2010, 260쪽)

128) 이름이 흥서에 거론되었으나 다행히 죽을 죄를 용서받았는데, 정충남(鄭忠男)이 또 공초하는 사연에 신을 끌어넣었으므로 간담이 내려 앉아 며칠 동안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심질(心疾)까지 점점 심해져서…성상께서는 미치광이가 되어 죽어가는 신을 붙잡히 여기시고 속히 명하여 신의 본병(本兵)과 금오(金吾)의 직임을 체차하소서. 그러면 공사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06권, 광해 8년 8월 21일

129) 狂病之無時發作, 苦招·諸招, 雖若公證, 初·覆供辭, 無一顛錯, 其眞其假, 孰能知之? 三尺至嚴, 不可以漫漶之招, 歸之顛狂, 【乙仍于】 郡守仍定同推官, 待用刑約日會推, 嚴刑得情, 【爲旆】 病狂一節, 不可不詳覈, 發作之果然無時, 光景之本來如何? 干連諸人及隣里諸人處, 更爲詳覈, 取招牒報. 『여유당전서』 「欽欽新書」 卷七, 祥刑追議 七

130) “의금부가 아뢰기를, "봉남령(鳳南令) 이영(李榮)이 거짓 미친 체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추문(推問)하려고 하면 혹 나자빠져 소리를 지르며 오만 짓거리를 하니 일체로 거짓 미친 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살펴 들건대, 부자간 사이가 화평하지 못하다고 하니 영평 부정(永平副正)이 거짓으로 미친 체한다는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으니, 오래 가두어두고 상태를 살펴 보기 바랍니다." 하니 ‘아뢰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義禁府啓曰: "鳳南令 榮佯狂與否, 未可詳知. 然欲推問, 或顛沛叫噪, 其狀萬端, 不可一以佯狂言也. 詮聞, 其父子之間, 本是不和. 永平副正所謂佯狂之言, 不可盡信也, 請久囚以觀其狀." 傳曰: "依啓.")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25일

그러나 모든 범죄에 관해 감형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악역(惡逆)과 관계된 범죄일 경우에는 설령 심질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없었다.<sup>131)</sup>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심질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상(綱常)을 범한 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은 이처럼 철저하게 성리학의 논리에 따라서 심질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적용하였다.

## 2) 조선시대 심질 환자의 실태와 처우

당시 사대부들이 인식하던 심질 환자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우며,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측면이 강했다. 다음은 조선의 문집에서 등장하는 심질에 대한 묘사이다.

① 대개 광인은 더운 여름에 두꺼운 갓옷을 입어도 더운 줄 모르고, 추운 겨울에 홑옷을 입어도 추운 줄 몰라 병들지 아니하고, 근심과 즐거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더러운 곳에서 살면서도 오직 음식을 먹을 때만은 짜고 싱거운 것을 적절히 알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으며 배부르면 곧 쉬니, 하늘이 사람에게 병이 들게 할지언정 죽게는 하지 않았다.<sup>132)</sup>

② 심질(心疾)을 앓는 미치광이가 남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헛소리를 바람벽을 향해 혼자 되뇌는 것에 불과할 것이니<sup>133)</sup>

③ 종조모께서 평소에 심질(心疾)을 앓으셨는데, 이것은 본디 아들이 죽어 통곡하면서 상심한 탓에 발작한 것<sup>134)</sup>

④ 심질(心疾)이 생겨 정신이상이 되어 미친 소리만 쉴 새 없이 하다가<sup>135)</sup>

위 사례들의 묘사를 보면 별다른 심질의 증상에 대해 폭력적인 증상을 나타낸다고 묘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대에서 조현병 환자의 보호자들은 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더욱 힘겨워하고 있다.<sup>136)</sup> 하지만 조선에서는 폭력성이 심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심질 환자를 강제로 격리해야 한다는 인식도 없었던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심질 환자는 지역사회 내에 속한 존재로 살아갔다. 이는 심질 환자들에게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주는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도 심질 환자를 경험하고 편견이 생길 여지를 방지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리학은 조금씩 심질 환자 스스로가 병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우선 심질에 대해 신체질환과 다르게 인식했던 부분은 관리의 임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131) “형조에서 계하기를, “경상도 하동 수군 김덕린(金德麟)의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광증(狂症)을 일으켜 그 어미를 물어서 죽게 하였으므로, 율을 상고하여 보니, 『의형이람(議刑易覽)』에 이르기를, ‘마음에 바람증을 일으켜 어미를 죽였더라도 결국 악역(惡逆)을 범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啓: “慶尙道 河東水軍 金德麟妻 心方因病顛狂, 咬吃其母致死。 照律, 《議刑易覽》云: ‘心風殺母, 終犯惡逆。’ 擬合處死。 ” 從之。)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22일

132) 『용재총화』 제4권

133) 이익, 『성호전집』

134) 정경세, 『우복집』

135) 『대동야승』

136) 최준형,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성: 공황장애와 조현병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대학원, 2021, 2쪽

조선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때문에 맹인, 앓은뱅이, 귀머거리 등 모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관리로까지 오르는 것이 가능했다.

신체질환이 관리의 임용에 큰 불이익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심질을 앓는 관리는 병이 탄핵의 사유가 되었다. 앞서 심질을 핑계로 사직을 청한 관리가 많았다는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었을 것이다. 앞장에서 관리는 항상 항심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심질은 병 자체가 항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었다. 이 때문에 항심을 유지하지 못해 심질을 앓게 되면 관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반신 장애나 맹인과 같은 신체질환자 중에서는 관리를 역임한다 하여도 장애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체의 병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거나 사직을 청한다면 해당 관리는 비난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sup>137)</sup> 심질의 발병 원인을 보는 관점이 조선에서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질은 인욕(人欲)으로 인해 발병한다. 이 때문에 질병을 보는 선악론적인 관점이 투영되어 심질을 앓는 사람을 악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질 중 탈영과 실정은 각각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의 추락으로 인해 발병한다. 이는 상실감에 따른 감정적인 변화가 원인이며, 개인의 욕심과 수양의 부족으로 발병한다고 생각했다.

사단(四端)의 ‘시비지심(是非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조선에서 심질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했다. 특히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조선에서 양명학(陽明學)이 학파를 이루게 되고 실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양명학은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하였다. 심이 곧 리(理)라는 뜻으로 마음을 닦아 이치에 닿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즉리에서 마음(心)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회로애락을 인성이라고 서술하였다. 인간의 심은 선과 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야(良知) 회로애락이 잘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심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 알지 못함은 악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성리학자가 심질이 발병했다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명종 대에 광증을 사유로 사직한 김범은 마음이 자족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하며 부끄러움을 가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sup>138)</sup> 또한 관리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에 있어 결격사유로 작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심질을 앓는 관리의 탄핵은 단순히 확연히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태뿐 아니라 일상에 지장이 주지 않는 상태도 마찬가지였다. 임의상은 간질을 앓아 재상으로부터 심질이 있으니 임금의 곁에는 들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간질을 앓았으나 병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정좌한 채로 참아 세상은 그가 병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글이 남아있다.<sup>139)</sup>

137) “영상 이덕형(李德馨)이 일곱 번이나 사직하니, 비망기로 일렀다. “나의 뜻은 앞서의 유사에서 이미 모두 말했다. 우선 다른 일들을 말할 것 없고, 지금 바야흐로 황제의 칙서가 내리어 모의(母儀)를 새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온 나라의 더없이 큰 경사이다. 비록 절름발이나 앓은뱅이 일지라도 오히려 나아가 하례하는 예절을 다하여 아랫사람들의 심정을 표시하는 것이 예의상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때에 병을 핑계로 집에 있으면서 소장을 올려 사직이나 청하여, 예절에 있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한 척하고 예절에 있어 인피(引避)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끌어다가 말을 하고 있으니, 불가한 일이 아닌가. 경은 다시 생각해 보고 마땅히 앞서의 분부대로 출사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163권, 선조 36년 6월 13일 무술

138)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한몸이 상한 것은 광증에 연유되었지만 마음이 진실로 자족하면 죄일이 망령되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몰래 스스로 비탄해 하며 항시 부끄러움을 가집니다.”(雖緣病狂, 心苟自慊, 孽不妄作。竊自悲悼, 常懷慙惡)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8월 28일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심질을 앓는다는 사실 자체가 탄핵의 사유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티를 내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선의 관료사회가 심질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심질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심질은 확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비일상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심질의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은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극도로 예민해지거나 불안해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증상까지도 나타낸다. 일부의 폭력적인 행위를 동반한 심질은 최악의 경우 살인이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병이었다.

이 때문에 의서에서는 심질이 심화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실록에서도 심질 환자로 인한 살인사건과 자해·자살 소동, 그 처결에 대해 기록해 놓은 기사가 다수 존재한다.

광(狂)이란 미친 것이다. 가벼운 때는 자기가 높은 사람이며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심할 때는 옷을 벗고 뛰며 담을 넘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 또 심할 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담화(痰火)가 성하여 그러한 것이다.<sup>140)</sup>

위 의서의 내용을 보면 심질의 일종인 ‘광’에 대해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부분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의서뿐 아니라 실록에서도 나타난다. 조선은 심질 중 특히 전광의 증상이 심각하며 치료도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간을 악질(惡疾)로 규정하였다.

악병(惡病)의 모든 증세는 전신이 마비되어 자유롭지 못하고, 허리 아래가 차고 습하며, 전간(癲癇)·골증(骨蒸)·종창(腫脹)·퇴산(癩癩)·청맹(靑盲)·해소(咳嗽)·천만(喘滿)이 많습니다.<sup>141)</sup>

그러나 광증이 악질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질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호적에서 나타나는 심질 환자의 수는 비정상적으로 적다. 조선 전기의 호적자료가 없어 조선이 호적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신체질환을 중심으로 파악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호적을 분석해보면 심질뿐만 아니라 신체질환 역시 후기로 갈수록 점점 호적 내에서 모습을 감춘다. 이를 볼 때 심질 환자의 수가 적은 것은 조선 후기 사회상의 문제이며, 특히 심질 환자는 사회의 변화에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은 『울산부호적대장』에서 나타난 병인의 비율을 나타낸 산출한 것이다.

139)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114쪽

140) 癲者, 異常也. 精神痴呆, 言語失倫. 狂者, 凶狂也. 輕則自高自是, 好歌好舞, 甚則棄衣走而踰垣上屋. 又甚則披頭大叫, 不避水火, 且欲殺人, 此痰火壅盛而然. 『동의보감』

141) 『성종실록』 15권, 성종 3년 2월 6일

〈표-5〉 울산부호적대장 병인 비율(%)<sup>142)</sup>

	가구수	비율(%)
심질	3	0.1
신체질환	869	36.4
미상	1513	63.5
합계	2385	100

위 표를 보면 심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호적에서는 병인들의 병명을 대부분 ‘병인’, ‘폐질’등으로 기재했다. 이 때문에 미상으로 집계된 63.5%안에 심질 환자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상에는 신체질환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질에 대한 비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국가정신건강현황」에 따르면 2021년 울산의 조현병 환자는 총 775명이 확인된다. 2021년 기준 울산의 인구수는 약 112만 명으로 당시 울산의 총인구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통계와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절대적인 인구수의 비교가 아니더라도 당시 집계된 심질 환자의 수는 비정상적으로 적다.

『목재일기』에서 나온 환자들의 병명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의 심질 환자 수가 결코 적게 집계되지는 않았다. 『목재일기』에 나온 환자들의 병증을 분석한 통계자료를 보면 성주에서 심질로 있는 이문건을 찾은 환자는 456건 중 총 17건이다. 이는 명시된 33건의 병증 중에 7위로 나타난다. 심질보다 높게 집계된 병증은 중기, 통증, 열병, 학질(瘡疾: 모기로 인한 전염병), 이질(痢疾: 법정전염병으로 급성세균성장감염병), 부기(浮氣: 몸이 붓는 병)로 이전부터 악명 높았던 병과 전염병 등이 위치하고 있다.<sup>143)</sup>

17건이라는 수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의 인구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 사대부는 기본적인 의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이가 많았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지방민을 상대로 처방을 내리기도 하는 존재였다.

『목재일기』는 이문건의 개인 기록으로 이문건이 직접 처방했던 이들에 대한 기록만이 담겨있다. 그러나 성주에서 처방을 해주었던 성리학자가 이문건 뿐만은 아닐 것이다. 관리들은 낙향 후 고향에 돌아가 처방을 하거나 약계를 운영하는 일이 많았다.<sup>144)</sup> 또한 조선에서도 이러한 약계를 지원하였고, 약계는 지방에서 민간 의료를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약계에는 그 지방의 유력 사족들이 모두 참여하였다.<sup>145)</sup>

『목재일기』의 기록과 약계를 통한 진료를 생각해 본다면 성주에만 적어도 17명 이상의 심질 환자가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시 성주는 조선에서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였

142) 울산부, 대구부, 단성현호적대장 중 울산부 호적대장의 병인 명이 비교적 구체적이었으므로 『울산부호적대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율을 산출했다.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울산부호적대장』 (<https://kyudb.snu.ac.kr/main.do>)

143)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들녘, 2014, 407쪽

144) 1603년에서 1842년까지 강릉에서는 사족의 주도로 강릉약계가 운영되는 등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약계가 유행한다. (신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로에서 시장 주도로」, 『한국사연구』 135, 2006, 3쪽)

145) 신동원은 강릉약계의 계원은 분석해보면, 당시 강릉지방에 거주하던 유력가문인 강릉 최씨, 강릉 박씨, 강릉 김씨, 삼척 심씨, 안동 권씨 등을 망라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신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로에서 시장 주도로」, 『한국사연구』 135, 2006, 9쪽)

다. 때문에 울산과 비교하면 여전히 인구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울산 호적에 기재된 심질 환자의 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아도 너무 적은 수치이다. 이는 관에서 심질에 대한 파악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질을 앓고 있음에도 스스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호적에서는 병인의 수가 시기가 지날수록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은 병인 중 특히 심질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심질은 울산과 대구, 단성 호적에서 단성에 한 번, 울산에서 세 번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심질이 면역에 있어 가장 먼저 제외되는 병이었으며, 매우 심각한 증상이 아니어서는 병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장애였음을 말해준다.

이와 더불어 표에서 보았듯 파악되는 심질 환자의 비율이 신체질환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당시 조선이 병인의 파악에 있어 심질 환자들의 실태를 보여준다. 집계된 0.1%의 심질에는 광증과 간질만이 등장하며, 폐질로 규정된 치와 같은 종류의 심질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표-5>를 통해 조선이 심질 환자를 면역의 대상자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심질 환자에게 대한 파악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8세기 조선에서는 토지세가 지역별 토지 면적의 총액에 따라 책정되었다. 이는 조선이 지역 주민을 호구의 총수로만 파악했다는 것이다. 지방의 호구 운영은 각 지역에 맡겨졌고 직역의 기재 또한 지방의 통치와 재정 운영상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민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sup>146)</sup> 이는 호적에 기재된 병인 또한 해당 지방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조선에서 병인의 기재에 있어서 심질은 신체질환보다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심질을 장애로 규정하고 신체질환과 함께 복지 정책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에서는 심질을 상대로 한 구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심질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그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조선의 사회상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조선은 지주들의 대토지 점유 비중이 늘어 자영농이 몰락하고 고리대가 성행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환곡의 양이 급증해 백성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1750년 영조가 균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의 실시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염세, 어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하여 양민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에서 양민들이 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는 장애인에게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특히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심질 환자는 증상이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정도가 아니면 더욱 면역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역을 지게 된 심질 환자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빈자리는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이웃이 대신 지어야만 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채우지 못한 할당량은 고스란히 마을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몫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심질 환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

146) 손병규, 「산 자와 죽은 자의 기재-戶籍과 族譜에 대한 역사인구학의 관점-」,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44~45쪽.

을 것이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질 환자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서서히 끊어놓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인해 조선 후기 양반을 풍자하기 위해 심질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심질 중 치(痴)는 양반을 풍자하기 위한 소재로써 자주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 구비문학을 보면 양반을 바보로 설정하여 그들의 행동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 같이 모여 양반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그들끼리 공동체 의식마저 생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심질을 앓고 있는 사람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sup>147)</sup>

오늘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특히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격리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인적이 드문 부지에 배치한다. 이는 주민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유대감이 형성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후기 심질 환자들은 지역 내에서 점차 유대감을 잃어가고 지역민과의 감정적인 거리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중기부터 심질이 인육을 먹으면 치료된다는 괴소문이 돌면서 범죄가 발생한 것도 심질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질에 의한 범죄는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면서 신문을 타게 되었다. 언론을 타게 된 심질에 의한 범죄 소식은 대중들에게 공포감만을 심어주었다.<sup>148)</sup>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유대감이 끊기게 되어 심질 환자를 경험해보지 못 겪지 못한 이들은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보도 프레이밍에 따라 해당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sup>149)</sup> 언론이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면 인식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뉘앙스의 보도는 점차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편견을 심어주었다.

성리학으로부터 이어진 심질을 바라보는 관점은 현재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질의 발병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 탓에 심질은 전체 장애인 중

147) 유현재는 조선 후기 장애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차용하여 양반을 풍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과 단절하는 의식이 먼저 자리잡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결국 장애인들의 불행이 나오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유현재, 「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식, 『조선후기 장애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 『태학사』, 433~466, 2009, 459쪽)

148) 정창권은 ‘인육’이라는 민간요법이 성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은 장애를 앓는 그대로 받아들여 장애로 인한 문제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았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장애인 지원 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아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삶이 되었다. 때문에 장애인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장애를 치료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장애인 지원은 이미 조선 후기부터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미 조선에서 관련 범죄가 생겼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인육’이라는 민간요법이 일제강점기에 장애인이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인육이 심질을 치료해 준다는 소문이 조선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창권, 『근대 장애인사』, 도서출판 사우, 2019, 128쪽~132쪽)

149) 최준형은 사회에 유통되는 언론 보도의 프레이밍을 조현병과 공황장애를 통해 보았는데,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공황장애의 진단 환자는 2010년 대비 2016년 138%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반면 사회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도된 조현병 진단 환자의 경우, 2017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단 환자 중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60.7%였다. 그 이유로는 41.2%의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고 서술한다. (최준형,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성: 공황장애와 조현병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대학원, 2021, 1~2쪽)

에서도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심질은 조선 시대 내내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조선 후기 장애인을 위한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자 심질 환자의 처우가 가장 먼저 열악해지기 시작했다.

#### 4. 결론

본 논문은 조선에서 정신질환을 지칭하였던 심질을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들의 처우를 연구해보았다. 의서에서는 심질이 칠정이 요동치며 생기는 병이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성리학자들은 이를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치료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들은 칠정을 심과 신이 주관한다고 보았기에 심질을 마음의 병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심질의 치료는 환자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고 성리학을 공부하여 마음에 해가 되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심질의 치료에는 단지할고를 통한 인육치료가 있었다. 실록의 단지할고 사례를 통해 조선이 ‘효’를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심질의 치료’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삼강행실도』의 기록만을 믿고 단지할고를 시행하는 이들과 생겼다. 이는 조선이 백성들에게 성공적으로 성리학을 내재화했음을 말해준다. 한편 인육 치료는 심질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미신이 퍼지게 되어 인육을 얻기 위해 도굴, 납치, 살인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심질자와 부양가족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하였고, 이러한 범죄는 결국 대중들에게 심질에 대한 인식의 악화만을 불러왔다.

조선은 덕치와 관형이라는 성리학적인 틀 안에서 병자를 보살폈다. 통치자는 천도를 바탕으로 덕을 닦아야 하며, 덕을 닦는 일을 소홀히 하면 천도의 운행이 어그러져 자연재해와 질병이 발생한다는 인식은 덕치의 필요성을 제공했다. 조선에서는 심질자도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자에 속했다. 실록과 법령자료를 통해 조선이 덕치의 방편으로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심질자에 한해 역을 면하게 하였으며, 곡식과 약재, 의복 등을 지급하고, 수령을 통해 상시 돌보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형벌 또한 그들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을 적용했다.

그러나 성리학적인 틀에서의 심질에 대한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심질의 폭력적인 증상은 인지하면서도 이들의 방한을 모두 부양가족에게 떠넘겼다. 부양가족들은 삼강의 도리라는 성리학적 규범 아래에서 심질 환자가 폭력성을 보여도 함부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심질은 허실과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문에 만약 적장자가 심질을 앓아도 자식을 생산하고 춥고 더움을 느낀다면 충분히 상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겨 이를 어긴다면 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심질은 법적으로 장애인에 속하였으며, 신체질환과 기본적으로 같은 법령 아래에서 복지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심질은 신체장애에 비교하면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질병이었다. 이를 우선 실록에서 나타나는 조선의 관리 임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조선은 신체장애와는 다르게 심질은 관리의 탄핵과 사직의 사유가 되었다. 이는 기가 말아 성이 잘 발현되는 이들이 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나온 결과였다. 칠정을 다스리지 못해 기가 성을 가리고 있는 관리는 치자가 될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조선 후기 울산의 호적자료를 통해 조선에서 병인의 파악을 신체질환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음을 확인했다. 조선 후기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호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병인 자체의 기재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회적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또한 이 시기 고리대의 성행과 균역법의 실시로 백성들은 이중고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질 환자는 매우 심각한 증상이 아니거는 병인으로 인정받는 것조

차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호적에서 병인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진 병인 또한 심질 환자였다. 심질환자의 호적 기재 비율을 통해 심질을 보는 관점에 신체질환과는 다른 차별의 시선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신질환은 신체질환에 비해 편견과 선입관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기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고는 성리학적 관점으로 심질을 살펴보기 위해 관찬 사료와 성리학 향유 계층의 사료만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구비문학 등의 민간 자료를 통해 심질에 대해 더욱 깊게 파악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사료

『경국대전』  
『경약전서』  
『다산시문집』  
『단성현호적대장』  
『대구부호적대장』  
『대명률강해』  
『대명률직해』  
『대전통편』  
『대전회통』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동춘당집』  
『동패락송』  
『목재일기』  
『방약합편』  
『본초유합요령』  
『부인대전양방』  
『비변사등록』  
『사계전서』  
『사미헌집』  
『상한경험방』  
『속대전』  
『승정원일기』  
『신기천험』  
『언해남약증치방』  
『용재총화』  
『울산부호적대장』  
『의람촬요』  
『의방유취』  
『제중신편』  
『주례』  
『조선왕조실록』  
『향약제집성방』  
『향약집성방』  
『효경』

### 2. 논문

- 강대혁, 김선옥,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현황과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역할」,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1), 15~27, 2011.
- 공창훈, 「朝鮮21代 王, 英祖의 神經精神症狀에 대한 考察」,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2019.
- 김근우, 「유가사상(儒家思想)에 바탕을 둔 한의학에서의 의료윤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3, (2009): 149~168, 2009.
- 김덕균, 「『세종실록』을 통해 본 조선 초 효문화의 특징과 문제」, 『효학연구』 19, 31~65, 2014.
- 김덕균, 「효자전, 감성과 이성의 사이-조선 초 효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55輯, (2021.5): 19~49, 2021.
- 김병민,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 『공익과 인권』 21, - (2021): 29~67, 2021.
- 김삼섭, and나정희, 「고려시대 장애인 정책 연구」, 『특수교육연구』 9.1 (2002): 3~18, 2002.
- 김성수, 「조선시대 儒醫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사학회지』 28(2), 105~120, 2015.
- 김성수, 「조선 전기 주요 의서에 나타난 정서의 질병에 대한 인식 탈영(脫營)과 실정(失精)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24.2, (2021): 7~36, 2021.
- 김용숙,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비극(悲劇)과 그 정신분석학적(精神分析學的) 고찰(考察)~'한중록'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19(0), 3~52, 1958.
- 김호, 「『흠흠신서』의 일고찰-다산의 과오설 해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4, - (2010): 233~267, 2010.
- 김호중, 「西厓 柳成龍의 醫藥 分野에 대한 認識」, 『역사교육논집』 33, - (2004): 63~83, 2004.
- 서정미, 「임오화변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경기도, 2016
- 서혜진, 「연산군과 폐비 윤씨의 양극성 장애 가능성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국내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울산, 2020.
- 성호준, 「儒醫 李梴과 栗谷 李珥의 保養論」, 『율곡학연구』 40, 281~306, 2019.
- 손병규, 「산 자와 죽은 자의 기재-戶籍과 族譜에 대한 역사인구학의 관점-」, 『조선시대사학보』 79, 39~71, 2016.
- 신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한국사연구』 135, 1~29, 2006.
- 신승현, 「연산군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경기도, 2018.
- 심재우, 「단성현 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존재양태.」, 『朝鮮時代史學報』, 36, -: 179~209, 2006.
- 심승구, 「조선시대 장애의 분류와 사회적 처우」, 『한국학논총』 38(0), 271~303, 2012.
- 오영택 외 5인, 「우황청심원의 고문헌기록 및 실험적 연구결과 분석을 통한 임상응용 확

- 대의 필요성 고찰」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6.1, (2017): 1~10, 2017.
- 유현재, 「시대와 인물, 그리고 사회의식, ‘조선후기 장애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 『태학사』, 433~466, 2009.
- 이강엽, 「바보 양반담의 풍자양상과 그 의미」, 『연민학지』 7(0), 243~269, 1999.
- 이경록, 「몸의 소비 : 조선전기의 인육치료」, 『의료사회사연구』 제4집, (2019): 5~37, 2020.
- 이기원, 「정약용의 심법론-이예제심(以禮制心)을 둘러싼 소라이학과의 충돌-」, 『인문과학』 제71집, 2018.
- 이부영, 「전통의학의 정신질환 개념에 관한 연구- 癲狂, 邪出 示, 臟燥症을 중심으로 -」, 『신경정신의학』 40.6, (2001): 1001~1017, 2001
- 이연도, 「유가 공부론과 명상 -퇴계 「활인심방(活人心方)」을 응용한 수양치료 모형 -」, 『한국 철학논집』 0.28, : 363~386, 2010.
- 이은희, 김경자, 이신영, 「광주지역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신경정신의학』 39.3, (2000): 495~506, 2000.
- 정재권, 「퇴계 《활인심방》의 활용방안 연구-심리상담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37, - (2021): 35~65, 2021.
- 정하은, 김창윤,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신경정신의학』 53.5, (2014): 299~309, 2014.
- 주동진, 전윤수, 엄진성, 「儒學者 趙聖期를 통해 본 조선시대 장애인의 삶」, 『인문과학연구』 26, 189~208, 2015.
- 최준형,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성: 공황장애와 조현병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대학원, 2021.

### 3. 저서

- 박영규, 『메디컬 조선』, 김영사, 2021.
- 성호준, 『한국의 유학과 의학』, 심산출판사, 2019.
-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들녘, 2014
- 양옥경,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주)나남출판, 2006.
- 이경록, 『조선전기의 의료제도와 의술』, 역사공간, 2020.
- 장윤선, 『조선의 선비, 귀신과 通하다』, 이숲, 2008.
- 정승호, 김수진, 『조선의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 인물과 사상사, 2021.
-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글항아리, 2011.
- 정창권, 『근대 장애인사』, 도서출판 사우, 2019.
- 황의환, 『東醫精神醫學』, 現代醫學書籍社, 1987

### 4. 사이트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main.do>)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https://skb.skku.edu/ddmh/index.do#a>)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s://www.koreanhistory.or.kr/>)

한의학고전DB(<https://www.medicclassics.kr/>)

## <ABSTRACT>

# Neo-Confucian Understanding and Coping of Simjil in the Joseon Dynasty

Jeong Yukyeong

Department of Korea History and Koreacultur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Along with natural phenomena, Joseon perceived human life and disease as being governed by a Neo-Confucianism order. For this reason, medical scientist dealing with diseases had to have Neo-Confucian knowledge, and Neo-Confucian thought that they had medical knowledge.

The Joseon Dynasty referred to mental illness as simjil, and simjil is the cause of all mental illness. In Neo-Confucianism, the Sim is where the Sin reside, and the Sin control the seven emotions. The Sim and Sin preside over a person's mental activities, and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mind and body, there will be a problem with the mental activities.

In Joseon, the medical scientist of mental illness was done through a strictly Neo-Confucian view. It can be said that the Neo-Confucian idea of mental illness is revealed from the name of the Simjil. The number of references to mental illnesses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Joseon Dynasty understood mental illness through a Neo-Confucian lens, and that this perspective continues to be influential today.

The Joseon Dynasty recognized the most fundamental method for treating psychological disorders was training of the mind. The mind had to be quieted by cultivating the heart. The way to make the mind calm was to look back on the mind and remove the greed of the patient himself. In other words, greed caused Simjil, which could hold the patient responsible for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of Simjil. Under this notion, an official who suffered from Simjil was ashamed of his illness, and it was identified as a reason for resignation.

In order to build a Neo-Confucianism state, Joseon needed to popularize the ideas of theology among the people. With shamanism and Buddhism already deeply entrenched as the religion of the people, it was necessary to show them the practical benefits of the science in order for it to take its place.

The cure of simjil was used as a way to promote Neo-Confucian. The Joseon Dynasty actively promoted cases of cures for Simjil through Dango-halji, recognizing

those who performed Dango-halji as filial priests and offering material rewards. This publicity was so successful that by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rumors circulated that human flesh was a cure for Simjil, and kidnappings and murders occurred. The Joseon Dynasty believed that it was exhausting to educate not only the officials but also the people and bring them under a Neo-Confucian order.

Therefore, the Joseon Dynasty tried to govern the mentally ill through a Neo-Confucian perspective. The Joseon Dynasty showed compassion for not only mental but also physical illnesses, providing grain, clothes, and medicines, and those who could not help themselves could be exempted from miscellaneous services and fatigue duty.

However, since Joseon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reliance and family support,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patient was heavy on the dependents. In particular, psychosis could lead to violent symptoms. These symptoms were recognized by the Joseon Dynasty, as evidenced by the Silok and Medical Records. However, it seems that it was not easy to support a patient with violent symptoms without a proper the social system within the the principles of the Sam-gang. The number of murders caused by insanity increase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confessed to killing people and suffering from insanity increased in order to receive a reduced sentence. As homicides related to epilepsy became more frequent, views of the disease itself began to deteriorate.

On the other hand, if we look at the late Joseon family registers, we can see that Simjil appears in a very small percentage of cases compared to physical diseases. This suggests that it was difficult to be recognized as an immune person if you had heart disease unless it was a prominent symptom. In the end, Joseon focused on physical diseases in describing the cause of the disease.

In the late Joseon Dynasty, various taxes were increased to make up for the shortfall in funding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Gyunyeok-law. The quotas imposed on the provinces were to be met by each village community, but the sick were less productive than the healthy. The quotas they failed to meet had to be filled by their neighbors. Unable to fulfill their own quota, they became a burden and a nuisance to the community.

However, the social system based on the Neo-Confucianism was unable to function in the later Joseon Dynasty. In the end, only the view of the mind through the lens of Neo-Confucianism has continued to influence the way mental illness is perceived in modern times.

Keywords: Simjil, Mental illness, Medical, Neo-Confucianism, training of the mind, Dango-halji, filial piety, Virtue politics, lenient punishment
---